

[부록 1]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언론 기사 모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코로나 시대 경제 협력 논의

입력 2020.11.27. 오후 3:29



27일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서울 JW메리어트 호텔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사진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일본 측 인사들이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7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회의가 한차례 연기된 뒤 서울 JW메리어트호텔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했다.

이번 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경제인이 한일연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축사), 남관표 주일한국대사(축사),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기조연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류두형 한화솔루션 사장 등 98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축사), 도쿠라 마사카즈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 109명이 참석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더 자유롭고 간결한 입국·격리면제·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양국 경제협력에 필수적인 추가적 조치들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현재 세계를 둘러싼 정세는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세계가 손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남준 기자 namjun@chosun.com]

"한·일 지도자, 덩샤오핑의 지혜에서 배워야"...과거사 문제 풀 '통 큰 결단' 촉구

중앙일보 2020.11.27 18:24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 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기초강연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일 경제인들이 27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어갈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온 협의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한차례 연기된 뒤 서울 JW메리어트호텔과 일본 도쿄 오키야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했다.

27일 제 5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화상 개최

홍석현 회장 "한·일 함께해야 美·中·北이 존중"

"코로나19 진정되면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

日 후쿠다 전 총리, 韓 남관표 주일대사 등 참석

이날 기초강연을 맡은 홍석현(사진) 한일비전포럼 대표 겸 중앙홀딩스 회장은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단 하나의 갈등 요인이라도 추가되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한일협정 6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역사화해 프로세스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역사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과거사를 풀어가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덩샤오핑의 지혜' 상기해야"

홍 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지도자들이 '덩샤오핑(鄧小平)의 지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방 개혁 원년인 1978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 분쟁에 대해 "지금의 중·일 지도층보다 더 지혜로운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전쟁 때 큰 고난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에 거액의 원조를 단행했다. 이같은 '통 큰 타협'을 통해 일본은 광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중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홍 회장은 한일 관계의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양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특별입법 절차를 통해 일본에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순이라고 제시했다. 이런 전향적 조치를 통해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번에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과거 두 차례 배상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특별입법을 통해 세 번째의 배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친일시비로부터 자유롭고, 민주화의 정통성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결단을 내릴 자격과 여유가 있다"고도 했다.

홍 회장은 대신 일본 정부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부 간 합의의 형태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일 함께해야 美·中·北으로부터 존중받아"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 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장진영 기자

홍 회장은 한국이 일본과 서둘러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 문제를 들었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협력적 관계를 복원할 때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더 공정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 미국, 중국의 존중을 받는다면 북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최근 스가 일본 총리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일청구권 자금은 북한이 개방됐을 때 경제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북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수요는 돌파구가 필요한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홍 회장은 전망했다.

홍 회장은 또 한·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비전포럼의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은 한일 양국과 미국 3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다 전 총리 "정치·외교적 상황 개선 위해 분발해야"

이날 행사엔 한국 측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했다. 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합의로 양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족했다"며 "양자 무역 확대는 물론, 제3국에서의 한일 양국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최근 한국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한국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국이 늘 부침이 있었지만 한일 경제인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제91대 일본 총리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은 가장 소중한 이웃 국가이자 바꿀 수 없는 무역파트너"라며 "현재의 정치·외교적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누카가 회장도 "얼마 전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7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양국이 노력한 것처럼,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렸다. 홍석현(오른쪽) 중앙홀딩스 회장, 박기영(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윤(왼쪽)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내빈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편, 이날 한일경제인회의는 토론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합의 환영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 등 공통 과제를 위한 상호 협력 ▲청소년 및 지역 간 교류 등 한일우호 인프라 추진 ▲민간교류 추진을 위한 양국 정부의 지원 촉구 등을 선언했다. 또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경제인 "코로나에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아래 협력 지속"(종합)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폐막...민간교류 확대 위해 양국 정부에 지원 요청 | 입력 : 2020.11.27 17:39:02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경제·인재·문화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제52차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경제인들은 27일 오후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폐막식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2020 SDGs 신시대' 출범을 선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협력 방안을 담았다.

먼저 양국 경제인들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제경제 속 SDGs 달성을 목표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환영하고, 제3국 한일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발류체인 등 양국 간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각국 정부를 향해선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원활한 비즈니스 교류 재개를 위한 정책 실시도 촉구했다.



△제52차 한일경제인회의

이날 회의는 한일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DGs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상양홀딩스 회장)은 "양국 정부가 '비즈니스 트랙'을 만들어 기업인 왕래의 길을 열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더 간결한 입국·격리면제와 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추가적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세계를 둘러싼 정세가 코로나 19로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따른 여러 영향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SDGs"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측 기조 강연자로 나선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는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1963년 독일-프랑스 화해 협력 조약인 엘리제 조약을 양국 관계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일협정 6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역사 화해 프로세스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한일핀 엘리제 조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그러면서 "과거사 해결은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해결된다"며 "일본을 문명국이자 경제 안보의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쿄올림픽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찾아온 만큼 양국 정상이 만나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방역 협력·한일 FTA 체결도 언급했다.

한편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겨레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코로나 이후 협력 논의

일력 2020.11.27 오후 5:20 수정 2020.11.27 오후 5:36

간소화된 입국 절차 더불어 "정경분리 입각해 민간교류 지원" 요구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기념해 한일 양국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유명환 전 장관, 류진 풍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홍석현 한일비전포럼대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연맹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자문위원회 부회장, 한일경제협회 제공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27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어 '202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신시대'의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이후 매해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회의가 한차례 연기된 뒤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위한 신시대의 출범을 선언하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한일연계 구축방안을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합의 환영 및 제3국 한일협업 추진, △SDGs의 달성,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등 공통과제 해결,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 활성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에 대해서 "본래의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를 한층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지원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의 재개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의 실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쪽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일출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총사), 남관표 주일한국대사(총사),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기조연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류두형 한화솔루션 사장 등 98명이 참석했다. 일본 쪽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을 단장으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총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총사), 도쿠라 마사카즈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시멘트 회장) 등 109명이 참석했다.

김윤 회장은 "다 자유롭고 간결한 입국, 격려면제, 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양국 경제협력에 필수적인 추가적 조치들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해소 노력으로 양국 정부간 대화와 소통의 움직임이 있음을 크게 환영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등 해결해야만 하는 공통의 과제들도 산적해 있기에,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현재 세계를 둘러싼 정세는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번 회의의 테마로서 내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개발목표로, 신종 코로나에 의한 여러가지 영향을 극복해 가는 것 자체가, 지소가능한 개발목표의 대척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사키 회장은 "글로벌화에 의해서 세계가 보다 폭넓게 결합되는 가운데, 리스크와 위기도 전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았다"며 "동시에 회복을 위한 노력도 세계가 손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전문

「미래를 여는 한일 협력 - 2020 SDGs 신시대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0년 11월 27일에 일본국 도쿄도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98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9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한일의 경제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마지 않는다. 최일선에서 온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양국의 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로 내건 SDGs는,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목표로, '건강과 복지'면에서 감염증 대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외에도 경제 성장과 산업, 빈곤, 교육, 회복력(resilienc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영향을 극복해 나가는 것 자체가 SDGs의 대척이기도 하다.

경제면에서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일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도, 온라인으로 양국을 연결하는 형태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인재·문화교류에 있어서도 web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 2020 SDGs 신시대-'를 테마로, 진솔하게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상호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제에 대해 연계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기에 함께 선언한다.

- 아래 -

1.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확고히 받아들이고,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한다.

(1) 한일 경제인은 이번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합의를, 자유롭고 폭넓은 무역·투자의 확대와 한일 기업의 제3국에서의 협업 등 경제 활동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환영한다.

(2) 또한, SDGs의 달성,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

(3)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상호신뢰에 입각하여 한일우호의 인프라로서 흔들림 없게 추진해 나간다.

(4)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본래의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를 한층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서포트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의 재개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의 실시를 강력히 요망한다.

2.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

그리고, 다음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 논의

입력 2020.11.27. 오후 2:44 수정 2020.11.27. 오후 3:49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일경제협회는 27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의 회장 개회사
[한일경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969년부터 매년 교차로 열리는 민간 경제 회의로, 올해로 52번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던 회의는 서울과 도쿄를 잇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 정부가 '비즈니스 트랙'을 만들어 기업인 왕래의 길을 열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더 간결한 입국·격리면제와 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추가적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등 공통과제를 갖고 있어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경제인회의 한국과 일본 측 참석자
[한일경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세계를 둘러싼 정세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따른 여러 영향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SDGs"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한국 측 정·재계 인사 98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자문위원회 부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 상사 특별고문 등 109명이 참여했다.

vivid@yna.co.kr

한일 경제인 "코로나에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아래 협력 지속"(종합)

입력 2020.11.27. 오후 5:39 수정 2020.11.27. 오후 5:40

김보경 기자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폐막...민간교류 확대 위해 양국 정부에 지원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경제·인재·문화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제52차 한일경제인회의
[한일경제협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국 경제인들은 27일 오후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폐막식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2020 SDGs 신시대' 출범을 선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협력 방안을 담았다.

먼저 양국 경제인들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제정세 속 SDGs 달성을 목표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환영하고, 제3국 한일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양국 간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각국 정부를 향해선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원활한 비즈니스 교류 재개를 위한 정책 실시도 촉구했다.



제52차 한일경제인회의
[한일경제협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회의는 한일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DGs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 정부가 '비즈니스 트랙'을 만들어 기업인 왕래의 길을 열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더 간결한 입국·격리면제와 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추가적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세계를 둘러싼 정세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따른 여러 영향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SDGs"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측 기조 강연자로 나선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는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1963년 독일·프랑스 화해 협력 조약인 엘리제 조약을 양국 관계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일협정 6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역사 화해 프로세스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한일판 엘리제 조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한일경제인협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과거사 해결은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해결된다"며 "일본을 문명국이자 경제 안보의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쿄올림픽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찾아온 만큼 양국 정상만 만나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방역 협력·한일 FTA 체결도 언급했다.

한편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vivid@yna.co.kr

남관표 주일대사 "한일 관계 악화 상황 타개 위해 최선"

입력 2020.11.27. 오후 3:29 수정 2020.11.27. 오후 6:06

박세진 기자 >

도쿄-서울 화상 연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인사말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는 27일 강제 징용관련 소송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기업인들을 상대로 밝혔다.

남 대사는 이날 도쿄 오쿠라호텔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일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일 양국이 함께 참여한 것과 기업인 왕래에 합의한 사실을 들었다.



(도쿄=연합뉴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27일 도쿄 오쿠라호텔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 대사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긴밀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만들어 성장해 왔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한일 경제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작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해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양국 국민과 기업에 어려움과 손해를 초래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최근 한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대사는 "양국 관계에는 늘 부침이 있었지만, 양국 경제인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튼튼한 버팀목이 됐다"며 그 중심점이 됐던 한일 경제인들의 이번 회의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열린 도쿄-서울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2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일본 측 인사들이 개회식을 하고 있다. parksj@yna.co.kr

한편 이날 회의에 일본 측 귀빈으로 참석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일한(한일) 양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심화해 왔고, 특히 경제면에서 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청 인사로 참석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일본의 젊은 세대에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큰 인기를 끄는 등 제4차 한류 붐이 불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에서 "정치 분야가 가장 지체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누카가 의원은 그러나 최근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 등이 방일해 오랜만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양국 간 수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양국 간의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yna.co.kr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입력 2020.11.27. 오후 2:49 - 수정 2020.11.27. 오후 3:13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중앙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과 도쿄에서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제인들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 오른쪽부터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20.11.27/뉴스1

psy5179@news1.kr

한일경제인,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공동 성명 발표

입력 2020.11.27, 오후 5:21



제52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기념해 한일 양국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유명환 전 장관, 류진 풍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홍석현 한일비전포럼대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후쿠다 아스오 전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연맹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자문위원회 부회장. (사진=삼양홀딩스)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27일 '2020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신시대의 출범을 선언하는 한편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교류 활성화에 나서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20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열리는 민간 경제회의다. 해마다 개최지는 양국을 번갈아가면서 정해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국 경제인은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합의 환영 및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추진 △SDGs의 달성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공통과제 해결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 활성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양국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의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으로 양국 정부간 대화와 소통의 움직임이 있음을 크게 환영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등 해결해야만 하는 공통의 과제들도 산적해 있기에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양국 경제교류 지속” 공감



산소통 · 2020. 11. 27. 13:52

27일 오후 서울과 도쿄에서 화상으로 진행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7일 오후 서울과 도쿄에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민간 경제회의로, 지난 1969년 발족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촉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남관표 주일한국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회장·후쿠다 야스오 전 내각총리대신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경제계를 대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양국 간 경제교류는 한일 관계를 지탱해 온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비록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경제교류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은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이, 한국에서는 홍석현 한일비전포럼대표 및 중앙홀딩스 회장이 맡았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를 여는 한일 협력’이란 주제로 양국 경제 전문가 4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52주년 맞은 한일경제인회의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해야”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52년째 중단 없이 이어져 온 ‘한일경제인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경제협력의 끈을 이었다. 27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서울 JW메리어트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양국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에서 각각 개최해 온라인으로 양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관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 전권대사는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 경제인들이 쌓아온 신뢰 관계를 통해 위기를 넘어서자”고 말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코로나19 극복, 신사업과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 양국은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만큼 양국 정부 등 관계자들이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5.7*14.8)cm

“직격탄 맞은 경협 회복하자”…韓·日 기업인들 한 목소리

양국서 한일경제인회의 동시 열려 후쿠다 “정치·문화 등 교류 확대를” 韓측은 “RCEP 인착·코로나 극복”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한일 기업인들은 수출규제와 불매운동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양국 경제부터 교류의 물꼬를 더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2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과 도쿄 미나토구 오쿠리호텔에서 동시에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장 소중한 이웃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며 “특히 경제적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홍석현(오른쪽부터) 중앙홀딩스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측면에서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 기업인들은 민간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한국 참가자들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교류를 재개하자고 언급했다. 역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인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현재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양국의 기지 사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수소 등 신(新)에너지 시장에서의 양국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을 지난 11월 15일 8년의 여정 끝에 체결했다”며 “역내 국가들에서 긴밀한 협력 모색이 가능해진 만큼 기존의 분업적 협력 관계를 제3국으로 확대 발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0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징용배상 문제 해결, 한국은 특별법 만들고 일본은 사과를”

(피해자 배상 조처)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해법 모색
“한국, 국회서 일본에 퇴로 열어주고
일본, 반성 입장 분명하게 밝혀야”
문 대통령·스가 통 큰 결단 촉구

한일 경제인들이 27일 제62회 한일경
제인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경쟁된 양국
관계를 풀어갈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특별 입
법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기초강연을 맡은 흥
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겸 중앙출판스
회장은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단
하나의 갈등 요인이란도 추가되면 낙타
의 등을 부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며 “한일협정 60주년인 2025
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역사 화해 프로
세스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매해 개최됐
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뒤 화상으로 진행됐다.

홍 회장은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특별



제62회 한일경제인 회의가 27일 화상을 통해 한일 양국 측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측 경제인들의 모습을 배
경으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웅 삼성전자 사장, 유명한 전 장관, 류진 풍산그룹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겸 중앙출판스 회장,
정진영 기자

입법 절차를 통해 일본에 퇴로를 열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
순”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 한국이 도
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면서.
이어 “한국 정부는 과거 두 차례 배상
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특별
입법을 통해 세 번째의 배상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라며 “천일 시비로부터 자
유롭고, 민주회의 정통성을 가진 문제
인 정부는 이런 결단을 내릴 자격과 여
유가 있다”고 했다.

홍 회장은 “(한국 측에서 이런 조치
를 취하면) 대신 일본 정부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
고 반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 간 합의
의 형태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 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
국 지도자들이 ‘당사오피(鄭小平)의 지

결정했다. 이 같은 ‘통 큰 타협’을 통해
일본은 광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중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엔 한국 측에서 남관표 주
일 한국대사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했다. 남 대사는 “양
국이 늘 부침이 있었지만 한·일 경제인
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축이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전 일본 총리와 누키가 후쿠시로
(榎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참
석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양국은 가
장 소중한 이웃 국가이자 바꿀 수 없는
무역 파트너”라며 관계 개선을 당부했
다. 누키가 회장도 “얼마 전 김진표 한
일의원연맹 회장 등이 방문했을 때, 양
국 정상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이야기를 나눴
다”고 소개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양국이 노력한 것처럼, 내년 도쿄 올
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
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대영 기자

kim.dayoung@joongang.co.kr

(28.7*16.5)cm



日韓経済人会議 環境分野など共通課題で企業間協力を 共同声明

2020年11月27日 19時15分 日韓関係

日本と韓国の企業のトップが意見を交わす「日韓経済人会議」がオンラインで開かれ、両国関係が悪化する中でも、環境分野など共通する課題で企業間の協力を深めるなど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ました。

日韓の企業のトップが意見を交わす「日韓経済人会議」は、ことし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オンライン形式で開かれ、日本側の会場となった東京都内のホテルにはおよそ100人が出席しました。

はじめに日本側を代表して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が「感染拡大で開催が危ぶまれたこともあったが、民間交流のともし火を守ることができて安どしている。活発に議論して実りある会議としたい」とあいさつしました。

また、基調講演を行ったホン・ソクヒョン(洪錫※ヒョン)韓日ビジョンフォーラム代表は、両国の関係について「関係が困難なときほど両国の首脳が会って虚心坦懐(きょしんたんかい)に意見交換し、互いに妥協点を探る努力を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

日韓両国は、太平洋戦争中の「徴用」をめぐる問題や、韓国向けの輸出管理をめぐる、関係が悪化していますが、会議の最後に採択された共同声明では「少子高齢化や脱炭素社会など共通する課題の解決に向けて強いパートナーシップのもと協力し合う」として、企業間の協力を一段と深めていくことなどで一致しました。

※「ヒョン」は「火」へんに、つくりが「玄」

日韓経済人会議 政経分離で民間交流支援求める 早期首脳会談も

2020.11.27 19:35 | 経済 | 産業・ビジネス



オンラインで開かれた日韓経済人会議 = 27日午後、東京都港区

日韓企業のトップらが経済関係の強化などで、意見交換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27日、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両国政府に「政経分離の原則に基づいた民間交流の支援」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で停滞する「ビジネス往来の再開」を求める共同声明を採択し、閉幕した。両国の関係が悪化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早期の首脳会談開催を求める意見なども出た。

韓国最高裁が日本製鉄に賠償を命じ、韓国で日本企業の資産現金化の手続きが進んでいることなどを踏まえ、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元会長）は、「関係が厳しい時ほど、経済、人材、文化の交流が一層重要だ」と、主催者を代表して取りまとめ、会議の成果を強調した。

同会議は1969年から毎年、日韓で交互に開催しており、今回が52回目となる。当初は今年5月に東京都内で開催する予定だったが、新型コロナ感染拡大のため、開催が延期に。都内のホテルと、ソウル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の実施となった。来年は韓国で開催する。

経済交流「力強く推進」 日韓経済人会議が共同声明

11/27(金) 21:19 配信

日本と韓国の財界人による日韓経済人会議が27日、東京とソウル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開催され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や、元徴用工問題などによる両国の関係悪化が続く中、経済や人材交流の拡大を「力強く推進する」ことを盛り込んだ共同声明を採択して閉幕した。

また声明は、日中韓など15カ国が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で合意したことに関し、「日韓企業の第三国での協業などを支援するもの」と歓迎。両国政府に対しては、円滑なビジネス往来の実現を含め、民間交流が一段と進むよう支援を求めた。

日韓経済人会議は1969年に始まり、今回で52回目。日本側の代表である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元会長）は、「こうした困難な時こそ、両国の発展と友好関係の再構築を目指し努力していきたい」と強調した。

한일경제인회의 11월27일 개최...서울·도쿄서 화상회의

송고시간 | 2020-09-29 14:38
김철선 기자



지난해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한일경제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을 고려해 올해 11월 한일경제인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로 양국을 오가며 열린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다. 올해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5월 19~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회의는 11월 27일 하루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과 일본 도쿄에 있는 오쿠라 도쿄 호텔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대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두 회의장을 연결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 재계 인사들이 양국에서 각각 100명 내외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 가능 인원은 일정 수 이하로 제한된다.

올해 회의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2020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신시대'를 주제로 열린다.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000070] 회장과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佐佐木幹夫)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이 참석하고, 양국의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한일비전포럼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한일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양국 재계 인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순서로 양국 기업인들은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한다.

지난해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9월로 연기돼 개최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경제 상호발전에 정치·외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대화 촉진을 통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강력히 요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kcs@yna.co.kr

한국경제

한일경제인회의 11월27일 개최...서울·도쿄서 화상회의

입력 2020-09-29 16:04 수정 2020-09-29 16:06



한일경제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로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력 행사다. 올해로 52회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5월 19~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오는 11월27일로 연기됐다.

협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입국제한·거리조치 등을 고려해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과 일본 도쿄에 있는 오쿠라 도쿄 호텔에서 각각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올해 회의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두 회의장을 연결해 진행된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양국 재계에서 각각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 인사들도 참석한다.

올해 회의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2020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신시대'를 주제로 열린다.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한일비전포럼 대표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각각 기초연설을 맡았다.

이후 전체회의에선 한일 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양국 재계 인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양국 기업인들은 행사 마지막 순서로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제 51회 회의에선 "경제 상호발전에 정치·외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대화 촉진을 통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강력히 요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경제

한일경제인회의 화상회의로...11월 27일 서울·도쿄서 이원 개최

기사입력 2020.09.29. 오후 3:32

지난 5월 개최 코로나19로 미뤄져
한일 대표기업 최고경영자 등 참석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주제로 진행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아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사진제공=산업자원통상부

[서울경제] 한일경제협회가 오는 11월 27일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매해 5월에 열렸던 한일경제인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년 이상 순연하다 화상회의로 방식을 변경해 열린다.

한일경제협회는 29일 제 52회 한일경제인 회의 개최 소식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로 양국을 오가며 열린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다. 올해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5월 19~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과 격리조치 등을 고려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과 일본 도쿄에 있는 오후라 도쿄 호텔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대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두 회의장을 연결해 회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는 각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 재계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방역을 위해 참석자는 각각 100명 내외로 꾸러질 예정이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기업인들의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회의 주제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2020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 신시대'다.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000070) 회장과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산업 및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양국의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한일비전포럼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한일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양국 재계 인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회의 마지막에는 양국 기업인들은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9월로 연기돼 개최됐다. 당시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경제 상호발전에 정치·외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대화 촉진을 통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강력히 요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서울경제

한일경제인회의 11월27일에 연다

기사입력 2020.09.29. 오후 4:37

서울-도쿄 화상회의로 연결
지속가능발전 등 주제로 협력

[서울경제] 한일경제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을 고려해 올해 11월 한일경제인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 양국을 오가며 열린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다. 올해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5월 19~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회의는 11월 27일 하루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과 일본 도쿄에 있는 오쿠라도쿄호텔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대신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두 회의장을 연결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재계 인사들이 양국에서 각각 100명 내외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 가능 인원은 일정 수 이하로 제한된다. 올해 회의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2020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신시대'를 주제로 열린다.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이 참석하고 양국의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한일비전포럼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맡았다. 마지막 순서로 양국 기업인들은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한다. 지난해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9월로 연기돼 개최됐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재용기자 jyee@sedaily.com

한일경제인, 스가 내각이후 첫 만남

기사입력 2020.09.29. 오전 11:04

11월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기업인 100명씩 서울-도쿄서
코로나 19시대 협력방안 논의
1969년 이후 매년 회의 열려

한국과 일본 경제계 인사들이 11월 서울과 도쿄에서 화상을 통해 만남을 갖는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첫 기업인들 간의 만남으로 양국 재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오는 11월 27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과 도쿄 오쿠라 호텔을 잇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3면

당초 올해 5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며 표류 중이었으나 결국 사상 첫 화상회의 방식으로 선회해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에서 각각 기업인 100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69년 처음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에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양국 기업인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통상 이틀에 걸쳐 회의가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의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하루 만에 끝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 After 코로나를 창출하는 한일연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양국 재계 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산업 지형에서 한·일 기업의 새로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한·일 기업인 왕래가 껍 막힌 가운데 이번 회의가 성사된 만큼 양국 기업인들은 관계 회복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첫 한·일 기업인들의 만남이란 점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회의 이후에는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한 의견과 정책건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한다. 김현일 기자

이데일리

한일 기업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협력방안 논의한다

7페이지 | 2020.09.29 | 오류 3건

11월 27일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회의로 진행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변화·수소사회 등 주제로 발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웹 회의 시스템으로 만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일 기업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첫 기업인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제 52회 한일경제인회의(사진-한일경제협회)

29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11월 27일 한국과 도쿄에서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한일 간 임국제한과 격리조치가 계속돼 불가피하게 서울 JW매리어트 호텔과 도쿄 오쿠라 호텔을 잇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일경제협회는 “하반기에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진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참가 규모 축소 및 회의 프로그램을 간소화해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양국에서 각각 기업인 100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경제협회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경제인의 ‘교류의 등불을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일관계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당초 5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에프터(After) 코로나를 창출하는 한일연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양국 재계 인사들이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19 상황으로 달라진 산업 지형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자리다.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와 한일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래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수소 사회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박순찬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 상무가 ‘수소 사회 도래와 비전 2030’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만남은 일본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첫 기업인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측에서 이미즈 하루히로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제 3국에서의 한일기업의 협력’에 대해 소개하고 후지 요시 유우코우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가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현황과 한일협력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한일경제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붙어졌던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계가 상호이해와 무역과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년 열리는 회의”라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한일경제인회의, 화상으로 진행한다...11월27일 개최

기사입력 2020.09.29. 오후 2:44 최종수정 2020.10.06. 오후 3:07

오늘(29일) 한일경제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을 고려해 올해 11월 한일경제인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이래로 양국을 오가며 열린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 행사입니다. 올해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5월 19~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회의는 11월 27일 하루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과 일본 도쿄에 있는 오쿠라 도쿄 호텔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두 회의장을 연결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 재계 인사들이 양국에서 각각 100명 내외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 가능 인원은 일정 수 이하로 제한됩니다.

올해 회의는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2020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신시대'를 주제로 열립니다.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이 참석하고, 양국의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한일비전포럼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한일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양국 재계 인사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순서로 양국 기업인들은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합니다.

지난해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9월로 연기돼 개최됐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경제 상호발전에 정치·외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대화 촉진을 통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강력히 요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日韓経済人会議、11月に開催

2020.9.25 18:14

日韓経済協会は25日、両国の企業幹部らが経済関係の強化に向けて議論する「第52回日韓経済人会議」を11月27日を開くと発表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収束していないため、東京とソウル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実施する。計約200人が参加する予定。

新型コロナ後を見据えた日韓の経済連携の在り方がテーマ。会議は1969年から毎年、日韓で交互に開催している。今年は当初5月に開催する予定だったが、新型コロナの状況を踏まえ延期していた。

[매체별 온라인 기사 리스트]

1. 한일 경제인 "코로나에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아래 협력 지속"(… 11/27(금) | 연합뉴스
2. 개회사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11/27(금) | 연합뉴스 | 김보경
3. 인사말 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11/27(금) | 연합뉴스 | 류효림
4. 인사말 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11/27(금) | 연합뉴스 | 류효림
5. 인사말 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11/27(금) | 연합뉴스 | 류효림
6.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11/27(금) | 연합뉴스 | 류효림
7.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11/27(금) | 연합뉴스 | 류효림
8.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 논의 11/27(금) | 연합뉴스 | 김보경
9. "징용배상 문제 해결, 한국은 특별법 만들고 일본은 사과를" 11/30(월) | 중앙일보 | 김다영
10. "한·일 지도자, 덩샤오핑의 지혜에서 배워야" … 과거사 문제 풀' … 11/27(금) | 중앙일보 | 김다영
11. [강연전문]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드는 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의 꿈 11/30(월) | 중앙일보 | 김다영
12.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논의 11/27(금) | 조선일보 | 석남준
13.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논의 11/27(금) | 조선일보 | 석남준
14.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양국관계·코로나에도 '교류 등불' 11/27(금) | 뉴시스 | 김종민
15. 한일경제인들, 양국관계 경색·코로나19에도 '교류 등불'(종합) 11/27(금) | 뉴시스 | 김종민
16. 한·일 경제인 화상으로 만난다 … "경제 교류 지속돼야" 11/27(금) | 뉴시스 | 이승재
17. 한·일 경제 인들 "입국·격리면제 더 간소화해야" 11/27(금) | 머니투데이 | 최민경
18. 韓日 재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경험 강화해야" 한목소리 11/27(금) | 아시아경제 | 강진형
19. [포토]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한 김윤 회장-홍석현 대표 11/27(금) | 아시아경제 | 강진형
20. 통상차관보, 한일 양국 경제교류 협력 강조 11/27(금) | 아시아경제 | 문채석
21. 막내린 韓日경제인회의 … "경제·인재·문화 교류 확대 추진"(종합) 11/27(금) | 이데일리 | 신민준
22. 스가 내각 출범 후 韓日경제인 첫 만남 … "미래 위해 협력" 11/27(금) | 이데일리 | 신민준
23.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개발목표 논의" 11/27(금) | 이데일리 | 이성웅
24.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코로나 이후 협력 논의 11/27(금) | 한겨레 | 박수지
25. "격리 면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기대한다" 11/27(금) | 한국일보
26. 한일경제인,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공동성명 11/28(토) | 뉴스 1 | 류정민
27. 기념촬영하는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28. 박기영 통상차관보 "한일관계 어렵지만 경제교류는 지속돼야" 11/27(금) | 뉴스 1 | 권혁준
29. 서울과 도쿄, 화상으로 만나는 한일 경제인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30.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31.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회장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32.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33. 한일 경제인, 서울-도쿄에서 화상으로 기념촬영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34. 한일경제인,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만남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35. 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한 김윤-홍석현-박기영 11/27(금) | 뉴스 1 | 박세연
36. 한일 경제인 회의, 코로나 속 양국 화상 회의로 열려 11/27(금) | YTN
37. 화상으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 "경제교류는 지속돼야" 11/27(금) | 노컷뉴스 | 김선경
38. 한일경제인,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공동성명 11/28(토) | 파이낸셜뉴스
39. 한일경제인,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공동성명 발표 11/27(금) | 파이낸셜뉴스
40. 올해 한일경제인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11/27(금) | 파이낸셜뉴스
41. 한일경제협회, 코로나 이후 한일협력방안 논의 11/27(금) | 파이낸셜뉴스
42. "직격타 맞은 경험부터 회복하자" … 韓日 기업인들 한 목소리 11/27(금) | 서울경제 | 이수민
43. 화상 회의로 머리 맞댄 한일 경제인 … 김윤 회장 '미래 위해 협력해야' 11/27(금) | 머니 S

44.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포스트코로나 양국협력방안 논의 11/27(금) | 이투데이 | 김해지
45.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경제교류 지속" 한마음 11/27(금) | 아주경제 | 박성준
46. 갈등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재계 11/27(금) | 아주경제 | 장은영
47. 기념촬영하는 신동빈 회장-김윤 회장 11/27(금) | 뉴스핌 | 윤창빈
48.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11/27(금) | 뉴스핌 | 윤창빈
49. 인사말하는 김윤 회장 11/27(금) | 뉴스핌 | 윤창빈
50.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11/27(금) | 뉴스핌 | 윤창빈
51.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 강화 ...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11/27(금) | 뉴스핌 | 임은석
52. 회의 참석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11/27(금) | 뉴스핌 | 윤창빈
53. 한일 경제인, 서울-도쿄 연결해 경제협력의 끈 잇다 11/27(금) | 에너지경제 | 김민준
54. 韓日 경제인 "양국 정부, 정경분리 입각해 민간 교류 지원 나서야" 11/27(금) | 아이뉴스 24 | 장유미
55. 한일 경제인, 서울·도쿄 연결해 경제협력 끈 잇다 11/27(금) | EBN
56.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김윤 회장 "'비즈니스트랙' 환영 ... 추가 조치 기대 ... 11/27(금) | 매일경제 TV
57. 한·일 경제인회의 올해는 '화상으로' 11/27(금) | 글로벌이코노믹 | 이정선
58. 한일 경제인 "코로나에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아래 협력 지속" 11/27(금) | 글로벌경제 | 김현우
59.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코로나 위기 속 '경제협력' 논의 11/27(금) | 데일리한국 | 이하린
60. 한일 경제인, 미래를 여는 경제협력의 끈 이었다 11/29(일) | 스카이데일리
61. 제 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신동빈 회장, 정기 임원인사 후 첫 행보 11/27(금) | 건설경제신문
62. 박기영 차관보, '한일경제인회의'서 양국간 협력 강조 11/27(금) | 건설경제신문 | 안종호
63. 한일경제인,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공동성명 발표 11/27(금) | 내외일보 | 이수한
64.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 강조 11/27(금) | 위클리오늘 | 이수용
65. 한일 경제인들 "끈 놓지 말아야" 11/27(금) | 보건뉴스 | 이원석
66.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상호발전 위 한 공동성명 발표 11/27(금) | 웹데일리 | 김소미
67.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상호발전 위한 공동성명 발표 11/27(금) | 웹데일리 | 김소미
68.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일 경제교류 협력 강조 11/27(금) | 뉴스랩 | 이석만
69. 한일 '경제협력의 끈' 이은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11/27(금) | 문화저널 21 | 최재원
70.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11/27(금) | 일간대한뉴스
71.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 강조 11/27(금) | 미디어투데이 | 안정태
72.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 강조 11/28(토) | 경남에나뉴스 | 이민석
73. 제52 회 한일경제인회의... 포스트코로나 경제협력 논의 11/27(금) | 한국면세뉴스 | 박주범
74. '얼어붙은 한·일 관계 물꼬트나? ... 김윤 회장 "한·일 경제인, 포스트 코로나 ... 11/27(금) | 뉴스워치 | 김주경
75. 제52 회 韓日경제인회의 개최 11/27(금) | 전파신문 | 산업팀
76. 한일경제인,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공동성명 발표 11/27(금) | 더퍼스트미디어 | 임한희
77.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일 양국 간 경제교류 협력 강조 11/27(금) | 포탈뉴스 | 박미영
78. 신동빈 롯데 회장, 쇄신 인사 이후 첫 대외일정 '한일경제인회의' 11/27(금) | 뉴스클레임
79. [포토]'파격인사' 후 첫 대외행보 신동빈 회장 ...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11/27(금) | 뉴스클레임 | 장시복
80. 한일 경제인, 양국 경제협력의 끈 잇는다 11/27(금) | 핀포인트뉴스 | 이승현
81. 한일 경제 인, 경제·인재·문화 교류 지속 합의 11/27(금) | 이코노텔링
82. 국제보도 2020 한일경제교류확대로 새로운 움직임 12/1(화) | NH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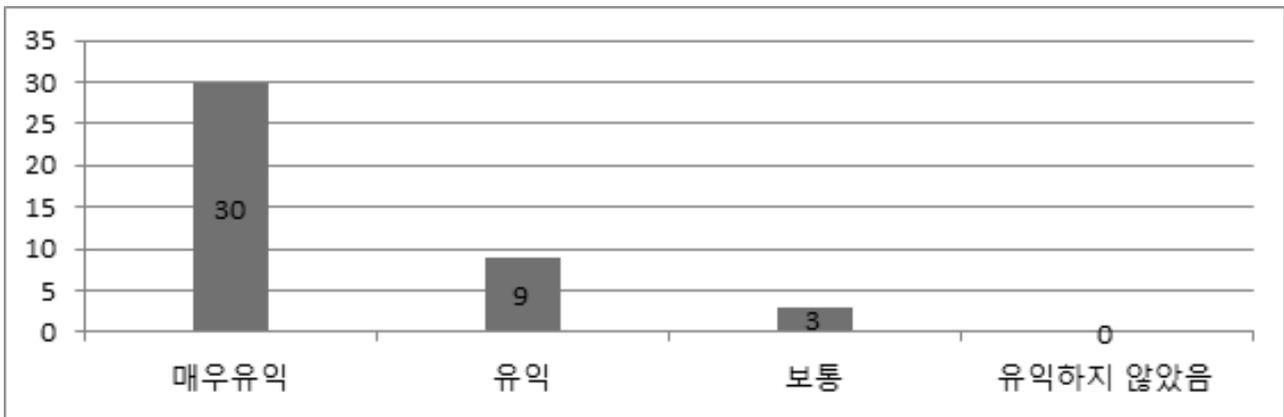
[부록 2]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 조사 결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기간 (11월 27)
2. 조사방법 : 회의장 현장 설문조사
3. 조사대상 : 서울 회의장 참가자 (한일 양측 기업인 등 90명)

■ 회의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 유익했던 이유

- 최신의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내용이 많았다. (2)
 - 한일 제3국 진출, 코로나19 극복 협력방안, 기업인의 출입국 등
- 미래를 여는 한일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잘 언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한일 관계의 최신 이슈 등과 시기적절한 논의점 등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으며,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합니다. (2)
- 한일 상호간의 공통과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좋았습니다.
- 생각을 서로 큰 틀에서 맞춰가고자 하고 있음을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처음 참가하는 회의였지만, 코로나19사태와 좋지 않은 한일관계 속에서도 일치단결 해가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 곤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미래 협력에 대한 논의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으며, 한일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
- 역사문제 등에 대한 한국측 재계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한일기업의 현상,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매우 의미 깊은 강연을 듣게 되었으며,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할 수 있었습니다. (2)
- 한일 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일 경제인이 현상황의 개선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였으며, 한일 정치, 경제계를 대표하는 리더분들의 생생하고 귀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
-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 지속해온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중단없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개최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

■ 평가의견

- 홍석현 대표의 기초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연설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현된다면,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 최근의 한일관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홍석현 회장의 기초연설은 감동적이고, 이성적이고, 대단히 건설적이었습니다.
- 홍석현 회장의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등 기초강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 역사문제에 관한 한국 재계인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개회, 기초강연,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콘텐츠가 모두 유익했으며, 균형감있게 내용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일한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의 감동적인 인사말씀은 한일관계 개선의 진정성이 확연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현 회장, 정구현 대표, 박순찬 상무의 발표 내용이 매우 흥미 깊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차에 대한 발표에 깊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3)
-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에 대한 정구현 대표의 발표내용에서 경제권의 예측이 구체적으로 흥미 깊었으며,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수소사회 도래와 비전2030을 발표한 박순찬 상무의 발표내용은 기술적인 진화를 알기 쉬웠으며,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기초강연은 일본측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아소회장도 발언을 하였지만, 한국측의 발표내용이 압도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강한면과 한국측의 비전을 일본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 한일 양국간의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이해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일경제인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
- 거리두기를 확보한 회의장 운영으로 안심감을 가졌습니다.
- 발표내용을 통해 한일 양국간의 과제에 대해 어려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조기에 코로나19가 수습되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국제회의를 원만히 개최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통신, 회의장, 영상, 마이크, 통역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준비된 알찬 행사였습니다. 적은 스텝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3)
- 전반적으로 의의 깊은 회의였으며, 만족도가 높은 회의였습니다. 너무 멋지고, 소중한 회의였습니다. (2)
- 웹회의로서 처음 개최되었지만, 관계자 모두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의사항

- 개회식에서 산업부 차관보와 남관표 대사가 언급했던 RCEP가 시작되면 따로 한번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며, 양국 기업인 간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한일 양국간 출장, 비자, 통관 등의 신속하고 소요시간을 줄이는, 예전 상태로 돌려놓는 일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일 양국 간 비즈니스 테마별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의 구체화를 요청드립니다.
- 좀더 한일 양국간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해 직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금번 회의는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 회의는 좀 더 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개선요망사항

- 내빈인사 시간을 줄이고, 주제발표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합니다.
- 전체회의에서 패널리스트 석에 모니터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동경 회의장처럼 좌석 배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크린이 어두워 화면을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2)

[부록 3]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강연

2020년 11월 27일

 **住友化学**
대표이사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전세계 현황①



COVID-19는 언젠가는 극복

SUMITOMO CHEMICAL

1

전세계 현황②

COVID-19는
본질적인 위기를 더욱 증폭 ·
첨예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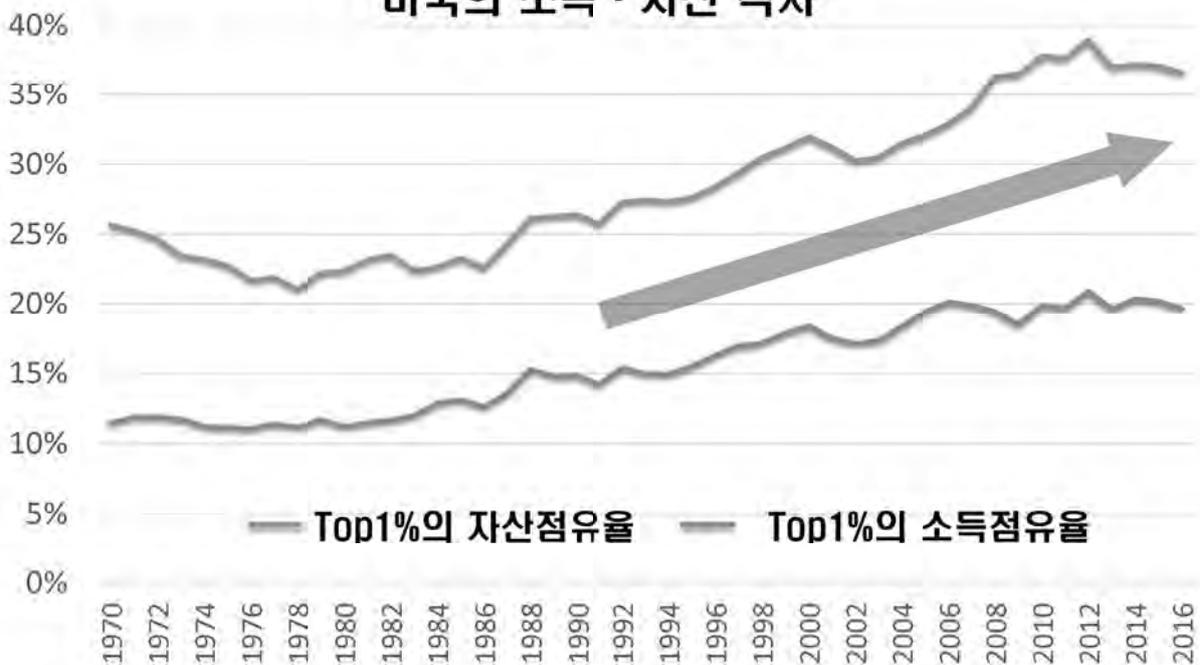


SUMITOMO CHEMICAL

2

양극화 확대

미국의 소득 · 자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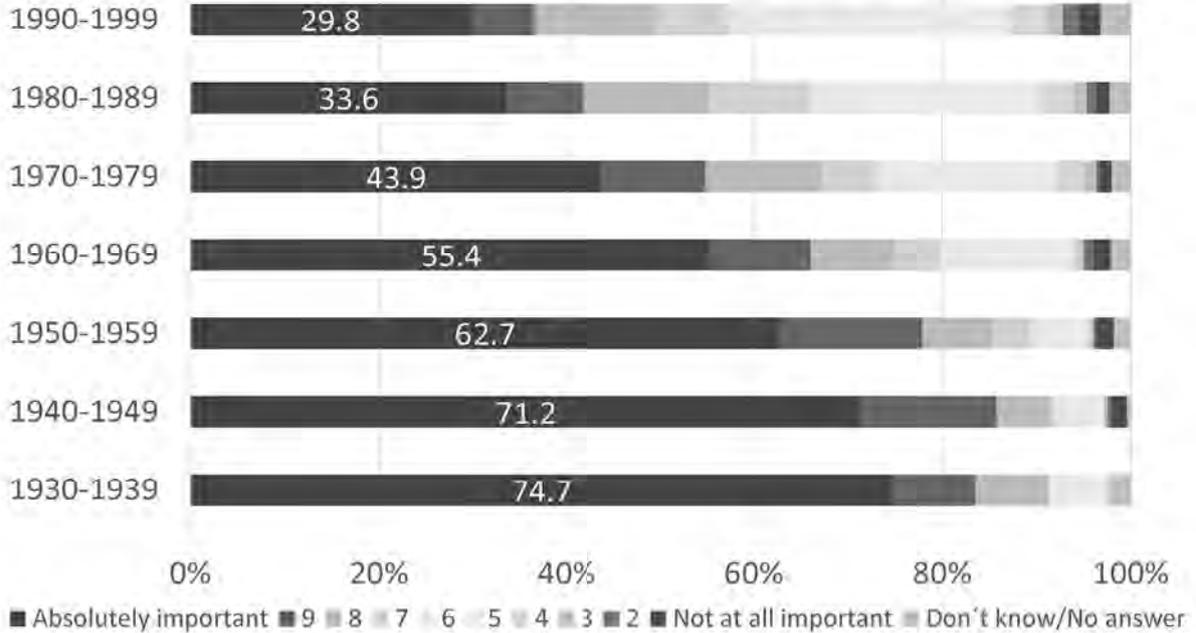
(자료 : The World Inequality Database (WID.world))

SUMITOMO CHEMICAL

3

민주주의의 중요성

미국의 민주주의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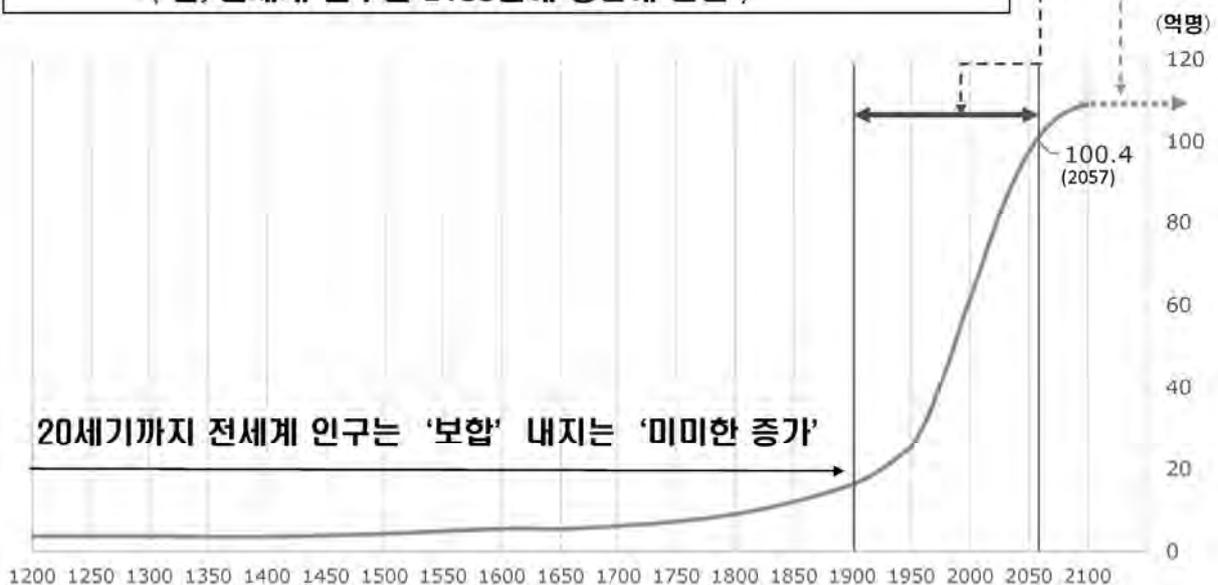
(자료 : '세계가치관조사(제7판)')

SUMITOMO CHEMICAL

4

세계 인구 추이

- 20세기 이후 전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2057년 100억명 초과)
 ⇒ 경제성장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외부불경제 발생
 (단, 전세계 인구는 2100년에 정점에 달함)



(자료 :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외)

SUMITOMO CHEMICAL

5

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 고조

<p>ESG투자</p>	<p>SDGs</p> <p>SUSTAINABLE DEVELOPMENT GOALS</p>	<p>파리협정</p> <p>2015 Paris Climate Agreement</p> <p>@UNStats</p>
---------------------	---	--

BR Business Roundtable

“Shareholder Value” (주주 가치) 와 더불어
 “Stakeholder Value” (이해관계자 가치) 를 중시

SUMITOMO CHEMICAL

6

Society5.0의 콘셉트

<p>Digital Transformation (Data Driven Solution)</p>	<p>X</p>	<p>Diversity & Inclusion</p>
--	----------	----------------------------------

이노베이션에 의한 과제 해결 · 가치 창조

Society 5.0

- 함께 창조하는 미래 -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ITOMO CHEMICAL

7

스미토모화학의 사업

■ 의약품

의료용 의약품사업, 진단용 의약품사업 등



■ 석유화학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공업약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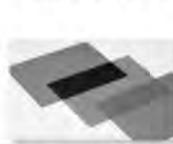
■ 건강/농업 관련

농약, 비료, 사료첨가물, 살충제, 의약품첨·중간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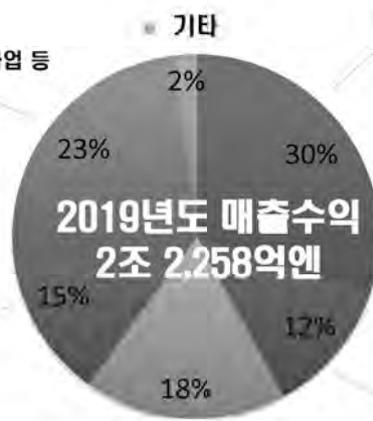
■ 정보전자

편광필름, 컬러 레지스트, 고순도약품, 화합물 반도체 등



■ 에너지/기능성소재

알루미나, 알루미늄, 고분자첨가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SUMITOMO CHEMICAL

8

스미토모화학의 사업 정신

「자리이타 공사일여(自利利他 公私一如)」

스미토모의 사업은 자신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국가를 이롭게 하고 또한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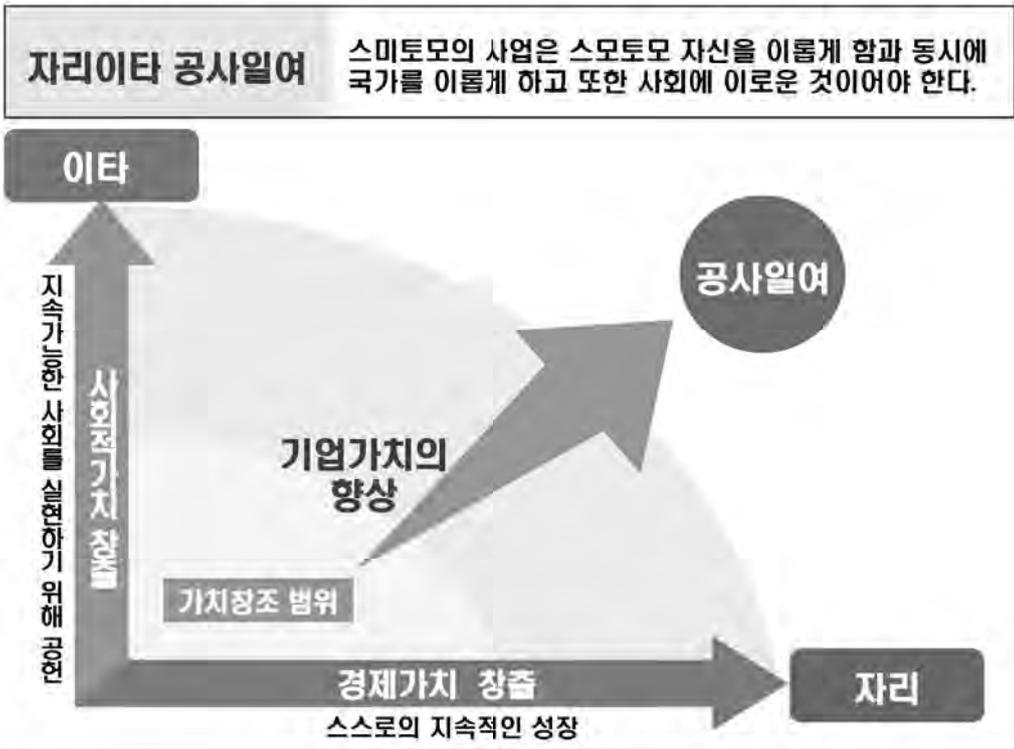
스미토모화학의 발상 = '환경문제 해결' 과 '농산물 증산'



SUMITOMO CHEMICAL

9

기업가치 향상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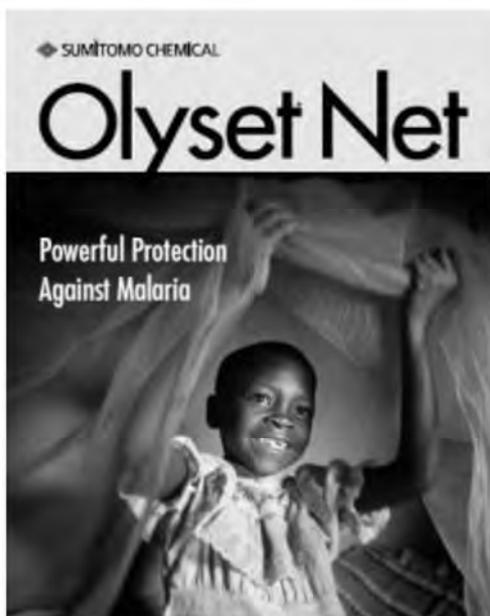


SUMITOMO CHEM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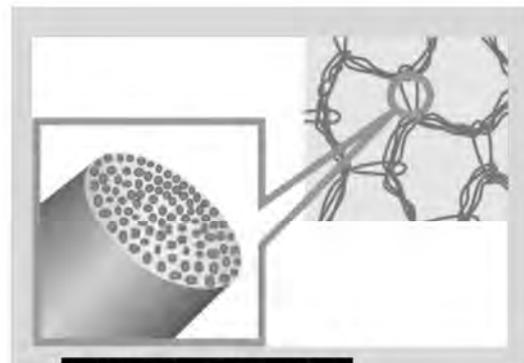
10

올리셋®넛①

세계최초의 효과가 지속적인 방충모기장 LLIN(Long Lasting Insecticidal Nets)으로써 WHO가 추천



학질모기(말라리아 매개 모기)
 • 암컷이 흡혈
 • 야행성 → 모기장이 효과적



페리메트린 혼합

SUMITOMO CHEMICAL

11

을리셋®넛②

감염증 대책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수
2000년부터 반감

13 기후변동에
구체적인 대책



3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복지




고용 · 성평등

현지 생산으로 7,000 명의
고용창출
여성취업 환경 정비

8 일어난 모질과
경제성장



5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

수익 중 일부 교육지원
아프리카 12개국에서 28개
프로젝트, 21,000 명 이상
혜택

4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SUMITOMO CHEMICAL

12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①

공통된
가치관

민주주의

자유무역

시장경제

공통 과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자원
부족

환경 ·
에너지
문제

SUMITOMO CHEMICAL

13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②

【 자유민주주의 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

-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지수화한 것
- 시민의 자유, 법에 의한 지배, 사법제도, 행정권 행사, 선거제도 등을 고려하여 지수화
- 주요 선진국은 0.7 이상이며, 파란색이 진한 지역은 민주주의지수가 높다.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자유민주주의지수가 높음

0 0.5 1

(자료 : V-Dem의 오픈데이터로 작성. <https://www.v-dem.net/en/analysis/MapGraph/>)

SUMITOMO CHEMICAL

14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③

현재

분단된 세계

생태계파괴



미래방향

국제협조

지속가능성

정의 · 공정 /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한일관계

【공통된 가치관】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양국에 의한 국제협조

【공통과제】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구체화

SUMITOMO CHEMICAL

15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④

‘한일 파트너십 선언’

- 한국과 일본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공동선언
- 1998년 10월 8일, 국민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서명



(出典 : 首相官邸HP (<https://www.kantei.go.jp/jp/obutisouri/profile/accomp/accomp03.html>))

- 한국과 일본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을 확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⑤



한일 파트너십 선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Society5.0 for SDGs ‘함께 창조하는 미래’

한일 양국 기업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도록 한다.

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국에서 한·일 기업의 협력과 현지공헌

日刊工業新聞社 (주)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미즈 하루히로

THE NIKKAN KOGYO SHIMBUN

지금까지의 실적

NO	일정	시절지	참가자		주요 방문지
			일본	한국	
제1회	2013년 1월20일 - 25일	인도네시아 (솔라웨이 섬) 태국 (나와나콘)	27명	15명	돈기스노로 (LNG), 山丸(신큐)태국, 東レ(도레이)태국
제2회	2014년 2월23일 - 27일	미얀마① (양곤)	29명	19명	미가라돈 공단, 티라와 공단, 타계타 화학발전소
	2015년 2월25일 - 27일	미얀마② (양곤)	12명	(1명)	JETRO, KOTRA, 미쓰비시MFJ, 미즈호, 미즈이 스미토모, 신한 은행, MJTD
제3회	2016년 11월14일 - 17일	몽골① (울란바토르)	(5명)	-	일본 대사관, 일본 상공 회의소, JICA, 제4 석탄 화력 발전소
제4회	2017년 7월18일 - 21일	몽골② (울란바토르)	16명	11명	일본 대사관, 한국 대사관, 신 울란바토르 국제 공항, 제4 석탄 화력 발전소, Everyday Farm
제5회	2018년 10월23일 - 26일	베트남 (하노이)	18명	10명	삼성 전자, 랑풍 공단, 베트남 일본 인재 협력 센터

참가 인원수

163명

THE NIKKAN KOGYO SHIMBUN

산업 정보의 플랫폼



THE NIKKAN KOGYO SHIMB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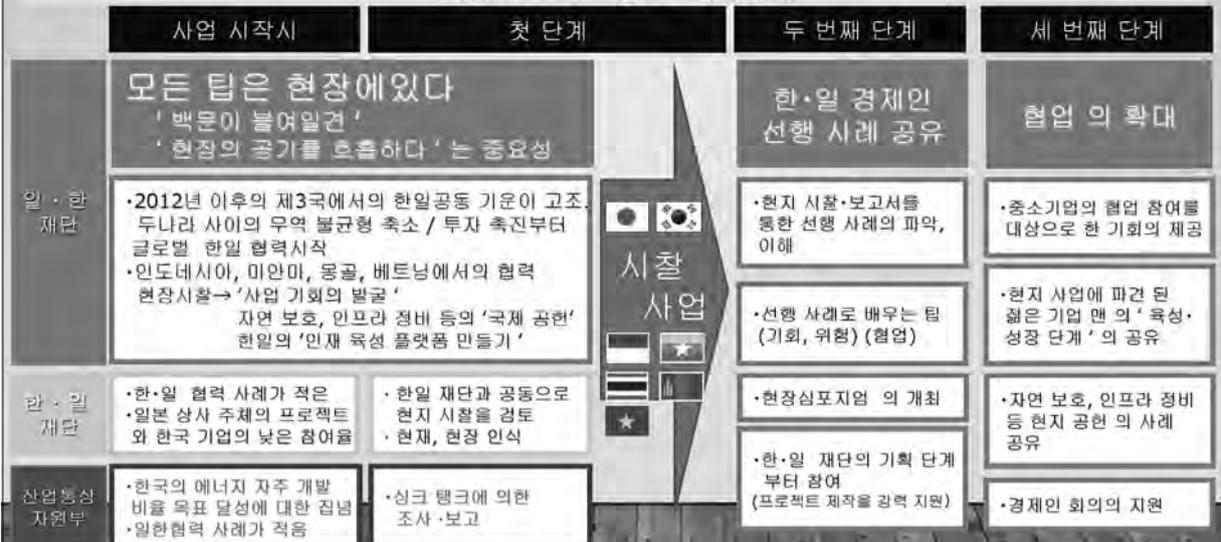
하나의 경제권 구축의 일환으로서 한·일의 '제 삼국 글로벌 전개'

목적

한·일 협업을 통해 인지도를 넓힌다.

- 성공 사례를 소개하여 한·일 경제계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실현 한다.
- 한·일은 '때로는 파트너, 때로는 라이벌'이며, 연계의 적합성은 자신의 기업의 판단 된다
- 한·일 연계는 선택 중 하나에 체재를 위하여, 연계 성립까지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인식 · 향후의 전개



THE NIKKAN KOGYO SHIMBUN

아시아권 만의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THE NIKKAN KOGYO SHIMBUN

한·일 연계를 의한 새로운 협력을 모색 : 미얀마



THE NIKKAN KOGYO SHIMBUN

그리고 다음은 . . . <말레이시아> 에서의 협력을 시찰



 THE NIKKAN KOGYO SHIMBUN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NIKKAN KOGYO SHIMBUN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발표자료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

2020.11.27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COVID-19의 영향

-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알던 문제/추세를 부각/가속화
 - 디지털화/온라인화/비대면거래 증가 (DX)
 - 빈부격차의 심각성 부각
 - 반글로벌화/보호주의/자국중심주의 강화
 - 미중 패권경쟁 가열
- 새로운 국면
 - 선진국과 후진국, 개도국의 개념의 혼란
 - 국가역할의 확대/프라이버시 개념의 약화
 - 인류에 대한 글로벌 리스크 부각: 기후변화의 위협 등 인식강화
 - 동아시아의 숨은 강점이 부각/자긍심 강화

COVID-19가 보호주의와 세계생산분업(GVC)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진행되던 추세 가속화

- GVC의 약화는 이미 진행되던 추세 (2010년 경부터)
- 어떤 이유로 GVC가 축소되었나? (2019년 McKinsey 보고서)
 - 경제의 성격 변화(2000년 이후): 서비스화/지식중심경제
 - 무역집약도 감소/상품과 서비스의 중요성 역전
 - 지식집약도 상승: 지적자산이 기업경쟁력 좌우/노동의 중요성 감소
 - 기술의 진보(자동화, AI, 3D 프린팅)로 인하여 생산의 분절화가 축소
 - 중국의 부상(2010년 이후): 무역의존도하락/기업역량상승
 - 중국경제의 성장과 내수의 비중 증가
 - 중국 제조업: 조립에서 종합제조업으로 발전
 - 신보호주의(2008년 이후): 미국이 守勢로
 - 2008년 대불황 이후 보호주의 경향 증가
 - 트럼프 등장 이후에 미중무역전쟁 발발

주요질문

1. 코로나 사태로 보호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될까?
2. 미중 패권경쟁이 GVC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
3. 세계경제는 3-4 개의 지역 분업체제(RVC)로 전환할까?
4. 동아시아의 분업체제(RVC)의 미래 모습은?
5. 새로운 국제 환경과 한일 기업간 협력방안은?

COVID-19로 인하여 보호주의는 강화?

▶ 코로나 이전 상황

- 미중무역전쟁(관세부과); 2020년 1월에 중단 합의
- 미국의 자국중심주의(TPP 탈퇴,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등)
- 세계적인 보호주의 경향 확산(덤핑규제 증가 등)
- WTO 기능약화(상소기구 무력화)

▶ 코로나 이후 상황

- 수입규제 증가
 - 의약품과 의료장비 수출규제
 -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규제(미국: 변압기, 크레인 등, 인도 등)
 - 덤핑판매 증가
- 직접투자 규제
 - 인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국가가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일부는 한시적)
- 자국기업 지원/보조금과 일부 산업국유화(항공운수업)
- 국내생산(reshoring) 확대 유도
 - EU는 제약업, 미국은 의료장비/의약품, 일본도 유턴 회사에 보조금

20117

코로나 시대의 GVC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 증가

▶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

- Huawei에 대한 미국기술/장비 활용 반도체 공급 중단
- Huawei, ZTE, China Mobile의 미국내 영업제한(2021년 5월까지 연장)
- 적성국에서 전력망 수입금지 행정명령(5월1일)

▶ 미국기업의 해외생산에 대한 규제

- 해외생산 미국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언급
- 애플은 중국내 생산 일부를 대만, 인도로 이전

▶ 제3국기업에 대한 중국사업 규제/공급규제

- TSMC, 삼성전자 등에 대해서 미국내 생산 유도

▶ 중국에 대한 투자제한

- 미국 연기금에 대한 대중투자 중단 명령
-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상원 통과(5/20) → 중국기업이 표적

▶ 무역합의(1월 합의, 2월 발효) 파기 논란

- ¼ 분기에 양국의 수출입이 대폭 감소: 미국의 대중수입은 28.4%, 수출은 15.4% 감소

▶ 환율조작에 대한 규제

- 환율조작에 대한 보복조치(상계관세 부과) 규정 개정(2월 4일)

20117

코로나 시대의 GVC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및 규제

- 미국의 중국 내 사업 규제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
 - 보잉사 항공기 등 매입 중단
-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폐지
 - 미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수는 200여개
 - '취메이유핀'(온라인쇼핑몰), '창유'(게임회사) 등이 이미 상장폐지
 - 미 증시에 상장한 19개 중국기업이 홍콩증시에 상장 준비
- 보유중인 미국 국채매각 또는 국채매입 축소
 -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감소추세(\$1,181.9 b. in '18.3 → \$1,120.5 b. in '19.3 → \$1,090 b. in '20.2) - 2020년 3월에도 \$200억 매도
 - 인민은행: "점진적으로 외화보유액 운용을 다원화 하겠다"고 발표(1/3)

201177

2021 11월 6일

7

사례연구: 반도체산업

- 미국 상무성의 수출규제(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중에서 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통해서
 - 미국의 반도체 장비나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한 반도체 제품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가 사항으로 발표(5.15 발표)
 - 이 조치는 TSMC(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가 화웨이 자회사(하이실리콘)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줄 전망
- 이번 조치는 메모리 반도체 보다는 비메모리사업(특히 foundry)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 3개가 미국계; 한국회사가 미국의 Lam Research의 장비를 사용해서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 경우 적용이 되나?
 - 메모리 반도체는 규격화된 commodity이기 때문에 DRAM이나 NAND등 메모리 제품은 미국의 수출제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foundry 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TSMC는 미국을 선택한 듯(미국 팹에 투자 중)

201177

2021 11월 6일

8

미국의 신 지역주의(EPN) 실현 가능한가?

- 미국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제안
 - 폼페이오가 4/29에 제안 – 아직은 형태(FTA?)와 내용이 무엇인지 애매함
 - 7개국이 주도하는 반 중국 경제연합?; 미, 호주, 인도, 일본, NZ, 한국, 베트남
- 미국의 입장
 - 2017년 취임하자 바로 TPP를 탈퇴했던 미국이 새로운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제안한 것은 모순
 -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가 상충
- 기존의 공급사슬이 상당히 뿌리가 깊고 단 기간에 변화 어려움
 - 기업들은 안보/리스트도 고려하지만 비용과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음
 - 미국기업들도 공급원을 분산시켜서 규제에 대응; 중국에서 제3국으로 생산입지 이동

2017

글로벌 전략 연구

10/10

세계경제가 3 개의 역내가치사슬(RVC)로?

- 공급체인에서 안보(안정적인 공급) 요인이 원가/효율에 추가되면서
 - 각국이 일부 품목의 일정 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의무화
 - 동시에 해외생산의 국내이전(reshoring 또는 U-turn)을 독려하고 지원
- 본국귀환(reshoring)의 한계
 - 미국의 국내는 생산기반이 취약 (근로자와 공급업자 부족)
 - 생산공장 건설에 장시간 소요
 - 가까운 저 생산국으로 이동(nearshoring)
- 부분적으로 지역 중심의 생산분업으로 전환
 - 미국은 USMCA를 중심으로 원산지 규제 → 멕시코가 수혜
 - EU도 독일을 중심으로 EU내 인접국으로 생산입지가 부분 이전
 - 아시아도 ASEAN(AEC)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동남아 중심의 분업 활성화

2017

글로벌 전략 연구

10

그러나 GVC는 상당히 뿌리가 깊음

➤ 국제생산분업의 역사

- 국제 생산분업은 1970년대 초 offshoring(해외 하청생산)으로 본격화
- 1970년대 초 미국의 수입상/대형소매상들이 노동집약형 경공업(의류, 신발, 잡화 등) 제품을 동아시아에 하청생산
- 아시아의 네 용(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이 이를 바탕으로 발전
- 하청회사들은 조립(assembly)에 특화: OEM 모델

➤ GVC의 본격화

- 1980년대 초부터 PC가 동아시아에서 조립 및 생산 (특히 대만이 부상)
- 복합GVC(3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국경을 2회 이상 이동) 발달
- 1992년에 중국이 전면 개방을 하면서 국제분업이 가속화
- 1991-2010년의 20년이 GVC의 전성기
-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 정보화와 중국의 개방(저임금 노동력)

201177

글로벌 세계와 GVC

11/11

GVC의 장점과 취약점

➤ 특화와 효율성

- 시장경제의 강점(아담 스미스): 분업과 특화
- GVC는 글로벌 차원에서 특화와 분업
- 가장 유리한 입지에서 경제활동을 수행
- 자유무역을 통한 글로벌 생산의 극대화: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 산업내 교역의 증가와 국제 수직적분업

➤ 상호의존도의 증가와 취약점

- 무역에서 부품과 소재의 비중이 증가
-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 보호주의, 전쟁, 질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과 중국 간에도 높은 상호의존도 형성
- 특히 IT 산업에서 동아시아 4개국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음

201177

글로벌 세계와 GVC

11/11

동아시아지역 생산분업(EAVC)의 모습

▶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EAVC)의 역사

- 1단계(일본주도시기, 1970-1990): 일본의 부품/소재를 4龍이 조립/수출
- 2단계(복합분업시기, 1991-2010): 일본과 한국, 대만이 부품을 공급하고 중국에서 조립해서 제3국에 수출
- 3단계(중국주도시기, 2011-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 1위로 부상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동북아 4개 경제와 동남아 9개 경제가 새로운 분업체제 구축

▶ 새로운 EAVC의 모습은?

- 미국의 보호주의를 피하려고 동북아 기업이 ASEAN으로 생산입지 이동
- 미국과 EU의 글로벌기업도 미중갈등을 우회하여 ASEAN으로 이동
- ASEAN 내에서 기존 5개국과 신흥 4개국(CLMV)이 인프라와 역량 강화
- 동북아 4개 경제와 AEC(ASEAN)의 보완적인 역량을 대체하기 힘들
-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생산분업'이 세계 제조업의 주력으로 부상

201127

글로벌 가치사슬 GVC

11

새로운 환경: D10 제안과 脫中國 GVC 구축

• 영국의 D10 제안

- 2020년 G7 정상회담 취소와 영국(Boris Johnson)의 제안
- D10 = G7 + 한국, 호주, 인도
- 두 가지의 구체적인 안건 제시: 5G 통신망 협력 + 새로운 공급망 형성 (후자의 의미는 핵심적인 제품의 공급 체인에서 중국을 제외시킴)
- 2021년 영국이 G7 주최국이라서 현재 G7의 다른 국가를 설득 중
- 제안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을 듯

• 과연 GVC의 decoupling이 가능할까?

- 5G 통신장비에서 중국의 Huawei, ZTE를 배제하고, 부품과 소재에서도 중국 회사를 배제
- 의료장비, 의약품 등 전략적/필수적 제품에서 탈 중국 공급망 구성
- 이러한 '탈 중국 GVC'는 새로운 제안인데 과연 feasible 할까?

201127

글로벌 가치사슬 GVC

11

두 상반된 추이: EAVC의 浮上和 탈중국 GVC

-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대한 EAVC의 의미
 - 한국의 총수출 중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62.3% (2018년)
 - 한국의 아시아 수출 중 중국과 ASEAN의 비중은 각각 42.5%와 26.3%
 - 글로벌 기업은 세 지역의 value chain에 모두 참여
 - 많은 중견/ 중소기업은 동아시아 VC에 적극 참여해야
-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
 - ASEAN에 대한 공급사슬(2015년) 중 순서는 역내(30.4%), 중국(14.5%), 일본(10.8%), 한국(6.2%), 기타(38.1%)로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음
 - ASEAN은 중국과 일본의 격전지이지만 이제는 전세계 기업이 진출
 - ASEAN向 FDI 유입액(2013-2018년)은 일본, ASEAN, 중국, 한국의 순서
 - 신흥 4국(CLMV)과 인도네시아가 한국기업에게 조금 더 유리함

201127

코로나 시대의 GVC

11

자료 1. 한국의 아시아 중간재 수출

(한국의 총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은 71.4%, 아시아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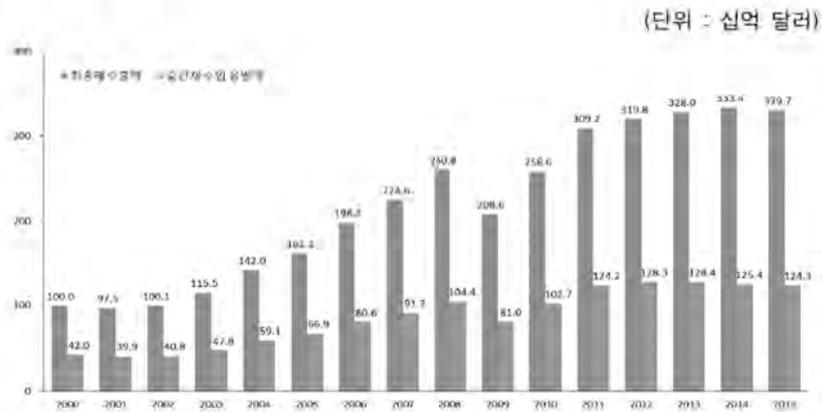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201127

코로나 시대의 G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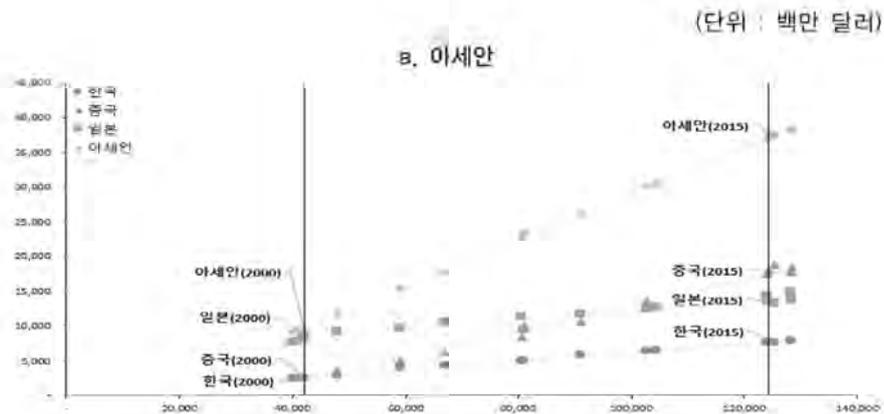
11

자료 2. 아세안의 최종재 수출액 및 중간재 수입 유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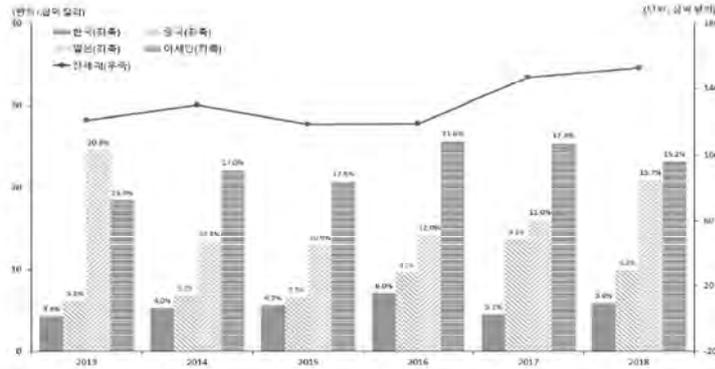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3. 아세안의 역내 및 한중일 공급사슬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4. 아세안의 역내 및 한중일 FDI



주 : 1) FDI 유입액은 각국 및 전세계로부터 아세안으로 유입된 금액임. 전산업 기준.
 2) %는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전 세계 FDI 유입액 대비 각국으로부터의 유입액 비중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201127

코로나 사태와 GVC

10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 정리하면

-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추세(보호주의와 미중갈등)를 가속화
- 특히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갖고 있고 생산입지를 다변화하고 있다.
- 가치사슬 지역화가 진행되겠지만, 다른 지역이 동아시아가치사슬(EAVC)의 규모와 경쟁력을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다.
- EAVC은 중국과 ASEAN을 중심으로 통합이 심화될 것 같다.
- 그러나 서방측의 탈중국 GVC 구축 노력은 새로운 시도
- 한일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음: EAVC vs. GVC decoupling

201127

코로나 사태와 GVC

10

참고자료

국제무역원 (2020),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코트라 (2019), 신남방 주요국 가치사슬 활용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20), 글로벌 교역동향과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
한국무역협회 (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OECD-KDI 공동, 글로벌 가치사슬 정책대화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관련기사

지역무역협정 가속...역내 가치사슬 상위부문 선점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532>

코로나19로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망 잇따라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47679

美 교통인프라 '자국산 우대정책' 강화 움직임에 따른 기회와 전망

<http://okfta.kita.net/mobile/news.do?method=viewReferData&idx=36183>

[포스트 코로나] 전문가 "코로나19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할 것" <https://www.aunews.com/view/20200506070904882>

코로나19로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망 잇따라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47679

美 교통인프라 '자국산 우대정책' 강화 움직임에 따른 기회와 전망

<http://okfta.kita.net/mobile/news.do?method=viewReferData&idx=36183>

코로나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ree-trends-shaping-post-pandemic-global-economy-by-dani-rodrik-2020-05>

미국의 대중국 다각화령 심화로 멕시코 제조기지 급부상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6857>

코로나로 흔들리는 글로벌 가치사슬, "뺄아지고 넘어질 것"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4/447423/>

코트라, 코로나19가 불러올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retIdx=244&qaSeqId=181274>

글로벌 밸류체인 중심에 '중국' 대신 '멕시코' 부상

<http://www.kidd.co.kr/news/215848>

ASEAN Logistics: Exploring the new frontier

<https://supplychainminded.com/asean-logistics-exploring-frontier>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내 일본기업 상황 및 향후 기대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사장
후지요시 유코(藤吉 優行)
(Seoul Japan Club 이사장)

· 목차

1. Seoul Japan Club의 활동
2. 코로나 영향과 현황
3. Seoul Japan Club과 부산일본인회 설문 결과
4. 설문결과에서 확인된 한일 경제 관계의 특징
5. 한일 기업간 교류의 중요성과 향후 기대
6. 마치면서

1. Seoul Japan Club 활동

Seoul Japan Club(SJC)는 1997년 3개 국내 일본단체(서울일본인회 · 서울일본상공회 · JV회)가 통합하면서 설립된 국내 최대 일본 커뮤니티로 한일 양국의 친목과 경제 ·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 회원수 : 법인회원 376개사, 개인회원 약 1400명 이상

<h3>1. 개인회원활동</h3>  <p><아구클럽></p>  <p><여성합창단></p> <p>각종 문화 · 스포츠이벤트 개최, 서울 근교의 문화 · 명승지 방문, 각종 클럽 활동 지원</p>	<h3>2. 법인회원활동</h3>  <p><한일경제인회의 지원></p>  <p><세미나 개최></p> <p>한국 정부 건의사항 제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세미나 · 연구회, 일한/한일경제협회와의 연대</p>	<h3>3. 서울일본인학교</h3>  <p>일본인 주재원 자녀의 교육지원과 학력 향상을 위해 서울 일본인학교 설립 ·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서울 특별시 마포구 · 설치자: SJC · 개교: 1972년 5월 · 지위: 사립 각종 학교 · 학생 수: 약 300명 	<h3>4. 기타 사회공헌</h3>  <p><한일축제한마당 · 인턴 수료식></p> <p>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 한마당 등 한일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인턴 채용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협조하여 올해는 23개 회원사에서 36명의 인턴사원 채용 안전대책 일본대사관과 연계해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세미나 개최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p>
---	---	---	--

2. 코로나 영향과 현황

SJC 활동과 국내 일본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준 코로나



[한국내 누적 감염자 정보(~10/30)]

감염자	완치자	사망자	치사율
26,385명	24,227명	463명	1.8%

시기	한국 정부의 주요 대응
2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위기 경보 '심각' 으로 상향 (2/23)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29~3/21)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3/22~4/19)
5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5/29~6/14)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무기한 연장(6/12~)
8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 (8/18~9/13) · 서울 · 경기 초중등, 유치원 등교제한 (8/18~9/20) · 수도권 대상으로 '다중강화원 방역조치' (2.5단계) 실시(8/30~9/13)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9/14~27)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9/14~9/27) · 주석 연유 '특별방역기간'으로 자정(9/28~10/11)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10/12~)

SJC 행사 중지

각종 탐방, 사적지 방문, 봉사활동, 스포츠대회 등 대부분 중지. 매년 실시하던 송년회 중지키로 결정

업무 · 이벤트 개최 변동

한일축제한마당 온라인 개최
회원사의 재택근무 실시로 인턴 채용에 일부 지장

서울일본인학교 교원 교대

서울일본인학교 신임교원의 부임 지연으로 온라인수업 · 교차 등교, 대사관의 협조 하에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임교원 파견 실시

비즈니스 왕래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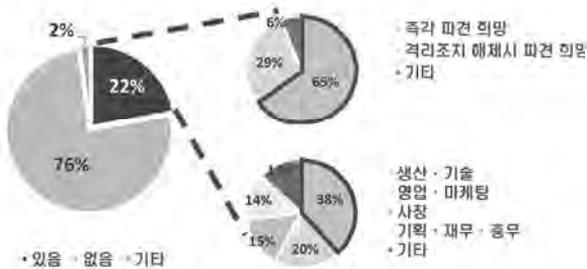
SJC법인 회원의 기업활동에도 영향
일본으로부터의 출장, 주재원 파견 · 교체 지체, 한국인 직원 연수 · 파견 지체

➔ 6월말 관련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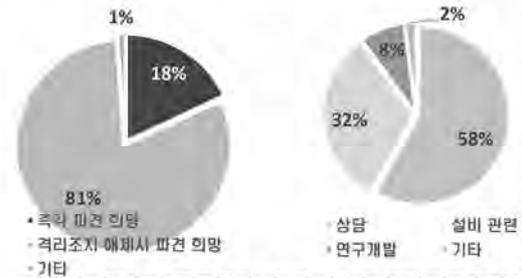
3. Seoul Japan Club과 부산일본인회 설문 결과(1)

SJC는 6월 말 부산일본인회와 공동으로 한국내 일본기업 441개사를 대상으로 '한일 왕래 관련 긴급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결과를 7월에 양국 정부(주한일본대사,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에 제출

【포인트 1】 한국으로의 주재원 파견 수요와 목적



【포인트 2】 한국으로의 출장자 파견 수요와 목적



본격적으로 입국 규제가 실시된 3월 이후, 6월 기준 93명이 입국 완료

기업 중 22%가 신임 주재원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 중 65%가 조속히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답변, 직무로는 생산·기술관계자(38%)가 가장 많음.

대부분의 기업이 한국에 출장자를 파견해야 한다고 답변, 목적으로는 상담과 설비관련이 대부분. 양국 비즈니스가 긴밀하고 빈번한 왕래를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3. Seoul Japan Club과 부산일본인회 설문 결과(2)

【포인트3】 한국인의 일본 왕래에 대한 수요



【포인트4】 일본인 주재원의 일본 왕래에 대한 수요



한국인들의 일본 파견(출장·주재원 부임)에 대한 수요도 많지만 일본의 입국규제와 14일 격리조치가 장애가 되고 있음

일본인 주재원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왕래가 편리하다는 전제 하에 업무와 생활을 하고 있음. 격리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이동을 못해 공사 모두 부담

4. 설문결과에서 확인된 한일 경제 관계의 특징 [1]

1. 가까운 거리와 접근성

당일출장이 가능할 만큼 근거리에 이웃한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영업·기술 서비스 분야의 대규모에 빈번한 인적 왕래가 한일 양국 기업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음.
 또한 양국 기업간 교류는 일본과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한 양국이 진출한 지역과의 교류로도 발전

2. 대체가 쉽지 않은 기술연대

입국·귀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계 기업 기술자들이 시간을 들여 VISA를 취득, 일부는 한국거래기업으로부터의 강력한 요청과 지원에 따라 한국정부로부터 특별히 자가격리 면제 허가를 받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

3. 양방향성

일본계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기업 측의 일본 왕래에 대한 수요가 많음

한일 양국 기업의 긴밀한 양방향 왕래에 의한 교류로 양국의 비즈니스가 성립

【참고】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한국내 339개사 대상, 6월 실시]

질문1. 한일일국제한 관련 고민	답변비율	질문2. 한일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요청	回答比率
현장방문 및 관리	44.9%	중국과 같은 패스트트랙 도입	43.6%
전문인력 교류	13.5%	정치적 발언·보도 자제	30.9%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	13.5%	양국간 수출 규제 완화	10.6%
신규거래처 발굴	7.9%	양국 물류·수송 환경 개선	7.4%
사업프로세스 지연	6.7%	비정기적인 민간교류 확대	3.2%
시장의 소비자 인식 변화	5.6%	상호역사·문화 이해	1.1%
기타	7.9%	기타	3.2%

4. 설문결과에서 확인된 한일 경제 관계의 특징 [2]

- 7월 중순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주한 일본대사, 외국인 투자 ombudsman)에게 설문 결과 전달
- 양국간 비즈니스가 긴밀한 왕래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코로나 감염 방지 조치를 충분히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원활한 한일간의 비즈니스 왕래 재개를 요청



5. 한일 기업간 교류의 중요성과 향후 기대

한일 비즈니스 트랙 실현

10월 8일부터 한일간 '비즈니스 트랙'이 실현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14일 자가격리 없이 비즈니스 출장 가능

하네다·김포 노선 부활

9월 말 SJC 차원에서 주한일본대사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맨에게 하네다·김포공항 항공노선 부활 요청서 제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길



긴밀한 비즈니스 왕래가 양국의 비즈니스를 뒷받침

조속히 비즈니스 왕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 협조로 관계 개선

인적 교류 확대 기대

- 비즈니스 트랙을 실현시킨 한일 양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 경제가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 유지되는 만큼 비즈니스 교류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 또한 보다 원활한 왕래가 가능한 프로세스의 실현 기대
- 양국 왕래에 편이성이 뛰어난 하네다·김포 노선의 조기 부활로 하루 빨리 양국 교류가 정상화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

6. 마치면서

- 긴밀한 비즈니스 왕래가 양국의 비즈니스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실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일 양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 온 자산인 한일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
- 나아가 비즈니스 왕래 뿐만 아니라 관광과 유학 등의 민간교류도 회복해 한일 양국간의 인적 교류가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기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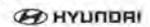
수소 사회 도래와 비전 2030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
박순찬 상무

‘패러다임 변화’와 ‘그린 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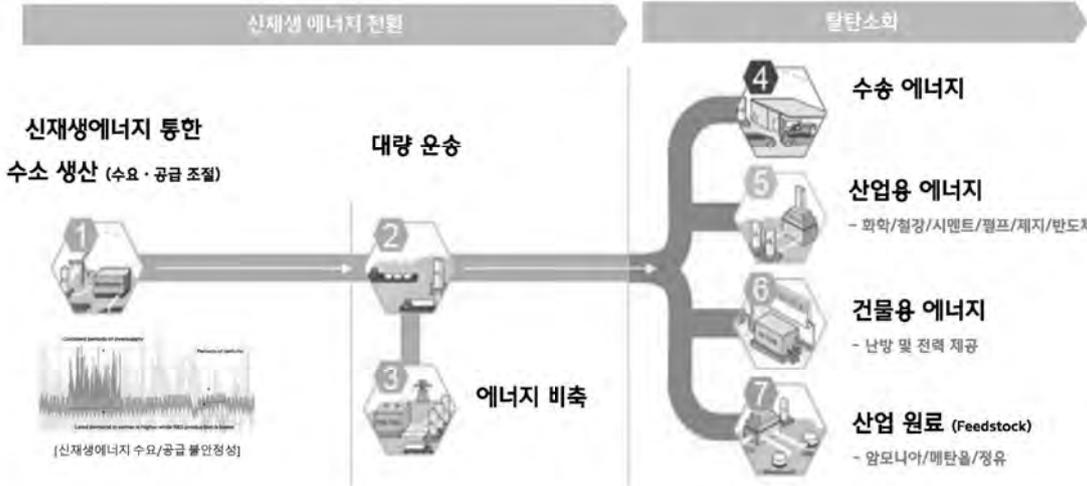
1



제레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2020)> 에서 산업혁명의 조건으로 네트워크, 동력원, 운송 메커니즘을 제시
2020년 현재,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생산, 재활용 한계비용을 0에 수렴시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전환, 대량 운송, 저장을 통해 다방면에 활용



수소 경제 본격 활성화

-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 Value chain에서 활성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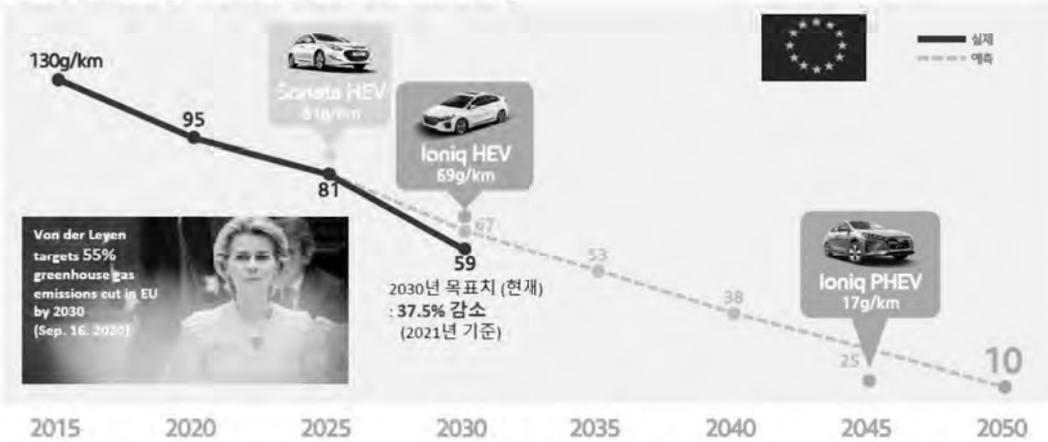
구분	유럽	독일	한국	중국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수소 전략 ('20.07) 약 €4,600억 Infra 투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수소 전략 ('20.06) € 200억 지원 계획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 경제 로드맵 ('1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 이니셔티브 선언 ('17)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GW 수전해 장치 설치 연간 1천만톤 그린 수소 생산(~'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전해 설비 확충 추진 '30년 5GW → '50년 10G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전해 통한 대규모 수소 생산 ('40) - 생산량 526만 톤/년 - 가격 3,000원/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메탄의 개질 등을 통한 수소 제조 기술 중점 개발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파이프라인 개조, 수소 운송 유럽 내 범국가 수소 pipeline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파이프라인 5,900km 을 수소 운송용으로 재정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이프라인 전국망 구축 및 액화 기술 개발을 통한 대규모 유통 추진(~'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거리 운송을 위한 기술 개발 고압 기체 운송(~'25) → 액체 수소 운송 (~'35)
충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전역 도로 운송 부문을 위한 충전소 확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최대 수소 충전소 운영 (87개소) 1,000개소 확충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 충전소 확대 '20년 33개소 → '30년 310개소 → '40년 1200개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 충전소 확대 계획 1,000개소 확충 (~'30)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택시, 철도 중심에서 '50년까지 선박, 항공기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 36억 예산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구매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경철버스 수소버스 전환 (~'28) 선박, 열차, 드론 등 활용 분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차 100만대 보급 (~'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연비, 배기가스 관련 환경 규제 지속 강화

- 환경 규제 불만족 시 판매 대수에 비례한 거액의 벌금이나 차량 판매 금지 등 강력 제재 예상
- 유럽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차량 환경 규제가 급속히 강화되는 추세

※ 최근 EU 집행위원회 (본 데어 라이엔)은 2030년 최대 55%까지 감축 언급 (현재까지는 37.5% 기준으로 적용 예정)

European Regulations on Fuel Effici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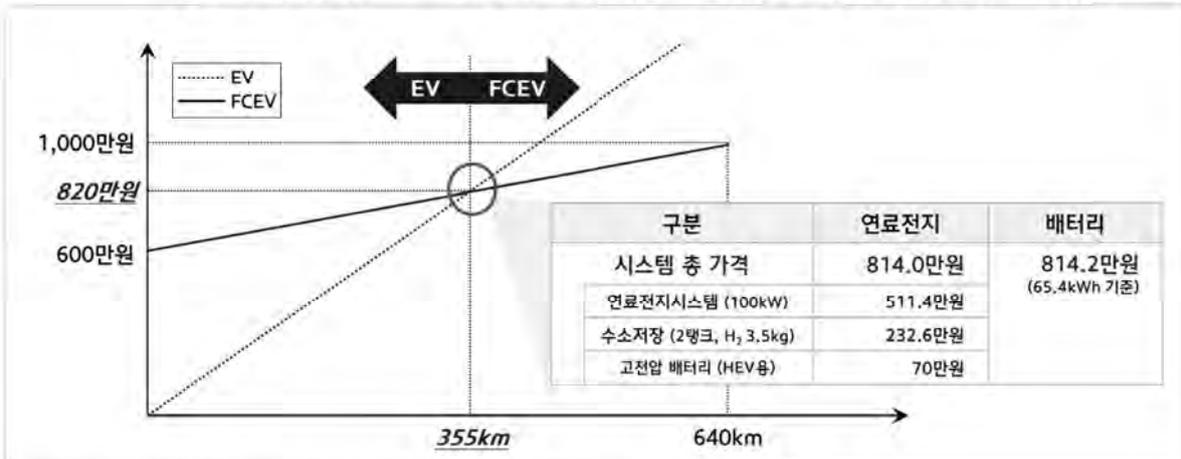
연료전지시스템 가격과 배터리 가격 비교 시 약 355km에서 Cost Parity 발생

- 연료전지 가격 = 연료전지시스템 (DOE 수치) + 수소저장 (DOE 수치) + 고전압배터리 (70만원 가정)

※ 연비: 4개 차종 평균치 102.1KM/H₂KG 적용 (도요타 미라이, 혼다 클라리티, 현대 넥쏘, 벤츠 GLC F-CELL)

- 배터리 가격 = 배터리시스템 (\$110 / KWH, 블룸버그 자료 참조)

※ 전비: 7개 차종 평균치 5.4KM/KWH 적용 (닛산 리프, 쉐보레 볼트, 테슬라 모델 X / S, 현대 코나EV, 제규어 I-PACE, 아우디 E-TRON)



※ 일본 경제산업성 및 미국 에너지성 연료전지시스템 원가 로드맵 발표

주요 완성차 업체 동향

6

HYUNDAI

도요타, M-Benz, 혼다 등을 중심으로 수소전기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 승용에서 상용차(버스, 트럭), 연료전지시스템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중

구분	내용
 <p>TOYO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세대 'MIRAI' 출시 ('20년 12월 공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속거리가 1세대 대비 30% 향상 예상 (연자 502 → 652 km) / 5인승 모델 ○ BMW와 협력하여 수소전기차 'X5 SUV' 테스트 시작 ○ 시즈오카에스마트시티 'WovenCity' 건설, 연료전지로 발전 시스템 인프라 구축 ○ 'Toyota Inside' 전략 추진 (연료전지시스템 판매 확대 목표, 당사 수소비전2030과 유사) 
 <p>Mercedes-Ben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GLC F-Cell'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연료전지와 외부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이 결합된 타입 - 출력 155 kW, 수소저장 4.4 kg, 배터리용량 13.5 kWh, 항속거리 478 km (유형기준) ○ 벤츠 창업보육센터 Lab1886, Rolls-Royce Power Systems 고정형 연료전지 시범사업 자원 ('19년12월) 
 <p>HON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da-Isuzu, 수소전기트럭 공동 개발 수행 ('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전지 기술 외부업체 최초 제공, 조선/선박사 등 타 산업에도 Fuel cell System 판매 검토 - Honda는 Isuzu와 연계하여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익 확대 도모 ○ '16년 (Clarity Fuel Cell)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력 103 kW, 수소저장 5.46 kg, 항속거리 589 km (미국기준) 
 <p>G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육군전자연구개발센터와 군용 수소전기트럭 '물로라도Z4H2' 개발 ('16년) ○ '실버라도Z4H2' 컨셉카 발표 ('18년) ○ GM-Honda, 연료전지시스템 공동생산 위한 합작회사 퓨얼셀시스템스 매뉴팩처링 설립 ('17년) 

승용 수소전기차 개발

7

HYUNDAI

20년간 연료전지 기술 노하우 축적하여 독보적 기술력 확보



Tucson ix

- 세계 최초 양산 ('13년 2월)
- 유럽 18개국 수출
- 미국 10대 엔진상

미국 2015 10대 엔진상



프랑스 올해의 친환경차



NEXO

- 5분 충전
- 600km 이상 주행
- 핵심 부품 독자 개발
- 10년 16만km 보증

미국 2019 10대 엔진상



2018 CES 에디터 초이스



2018 CES 아시아 기술혁신상



독일 전문지 Auto Motor und Sport 넥소 호평 기사('20.06)



" 긴 항속거리, 짧은 충전시간으로 장거리 용도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 가족용 차로 부족함이 없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 ('20. 7) 및 상용차 글로벌 수출 본격화

- 정부 실증 사업 중심으로 고속버스, 중형트럭 등 '20년 이후 차종별 라인업 확대

세계 최초
현대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



[엑시언트 수소트럭 10대 스위스 젯 수출 (7.6)]

연료전지 스택	190 kW
최고 출력	350 kW
수소 중량량	32 Kg
항속거리 (정속주행기준)	400 km

구분	주요 내용	개발 차량
중대형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자체 요구에 대응 시내버스 개발 → 시내버스: 지자체 중심 시내버스 판매 ※ 주요 도시 실증사업 추진 및 확대 검토 → 대형버스: 정부 요청 경찰수송버스 / 고속버스 개발 추진 	 시내버스 (시범운행 19년, 양산 20년)
중대형 트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트럭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수소전기트럭 개발 → 중형트럭: 쓰레기수거차 및 노면 청소차 개발 → 대형트럭: 스위스 H2 Energy社 MOU 체결 총 1,600대 공급 본격화 	 경찰병력, 감역버스 (개발중)
		 쓰레기수거차, 노면청소차 (개발중)
		 차세대 컨셉 '넵톤' (개발중)

NEXO, 국내 및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안정성 입증

- 국토 교통부 주관 '18년 신차 안전도 평가(KNCAP) 충돌, 보행자, 사고 예방 부문 3관왕
-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Euro NCAP)에서 최고 안전 등급 획득



전방 충돌 테스트



후방 충돌 테스트



전방 충돌 후 모습



후방 충돌 시 수소 탱크 모습

비자동차부문 사업 추진

10

HYUNDAI

선박과 철도 시장에서도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연료전지 활용 추진 중이며
미래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및 비상 발전기로 연료전지 활용 확대 가능

<p>수소 선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연료전지 선박 시장 성장 예상 • 소형선박 동력원 및 대형선박의 보조전원 중심으로 시장 형성 전망 	
<p>수소 기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공급이 쉽지 않은 지선 철도망 대체 수요로 연료전지 활용 검토 • 도심내 운행으로 정속성/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경전철 및 트램에 적용 	
<p>UAM (Urban Air Mo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은 도심에서의 이동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모빌리티 • 연료전지는 배터리 대비 장시간 비행 가능하며, 고밀도·경량화 시스템 개발 	
<p>비상발전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성과 고효율, 상시 가동성 등을 활용 비상 전력, 보조 전력 분야에 적용 •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EV충전시스템, 보조전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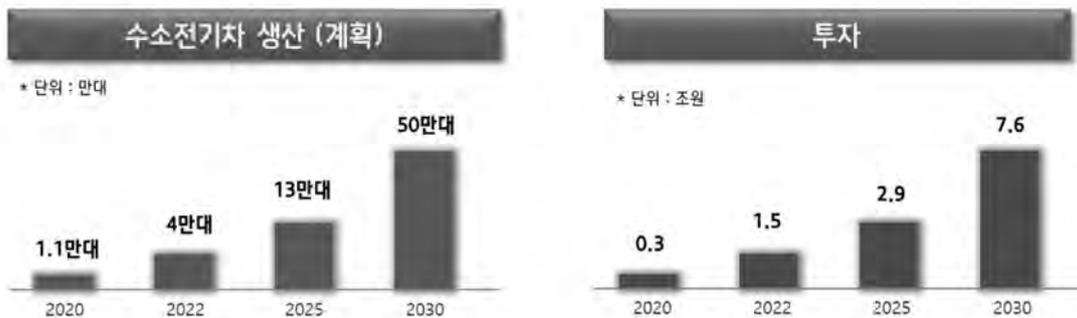
수소비전 2030

11

HYUNDAI

현대차그룹, 미래 수소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조원 선제적 투자

- 2030년 수소 전기차 연간 50만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70만기 국내 생산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은 머지 않아 다가올
수소경제라는 신 산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친환경 수소 생산과 저장 기술 개발 추진

- 배터리, 연료 전지, 슈퍼캡 등 기술 포트폴리오를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

수소 생산 (전기분해)

- 수소산업 시장 확대
(총 수전해용량 '25년 55배 / '15년대비)
※ 수전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
- 비저량 분야 수요 확대 예상
- FCEV 기술과의 연계성 고려 수전해 기술화
※ PEM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미래 수전해 시장 전망]

수소 저장

-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저장 효율 제고
→ 수소저장 시스템 개발
- 비정형 수소 탱크 개발 (사각형 or 기타 형상)
- 액화 수소저장 시스템
※ 700bar 기준 액화시 1.7배 적정량 증가

[비정형 수소탱크 개발]

[수소 액화 저장 시스템]

모빌리티

- 배터리, 연료전지, 슈퍼캡 (연료전지파워어시스턴트) 3개 동력 시스템을 활용해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
※ 고효율 수소전기차 슈퍼캡 적용시, 순간 요구 동력성능 만족 (배터리 대비 동력 성능*, 연비+)
- 고성능차 보조전원, 트램, UAM 등 슈퍼캡 적용가능

구분	에너지 용량	에너지 파워	순간 반응도
배터리	[LOW]	[MEDIUM]	[MEDIUM]
연료전지	[NORMAL]	[NORMAL]	[NORMAL]
슈퍼캡	[LOW]	[HIGH]	[HIGH]

[에너지 시스템별 성능 비교]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수소사회 가속화
자동차, 항공, 석유화학, 에너지, 정보통신, 금융/투자 기업들까지 수소위원회 참여

창립회원 13개社 ('17.1)



총 92대社 확대 ('20.7)



Hydrogen Council 프랑스 회의 ('20.1)



감사합니다

일본어 자료



日韓経済人会議 基調講演

2020年11月27日

 **住友化学**
代表取締役会長
十倉 雅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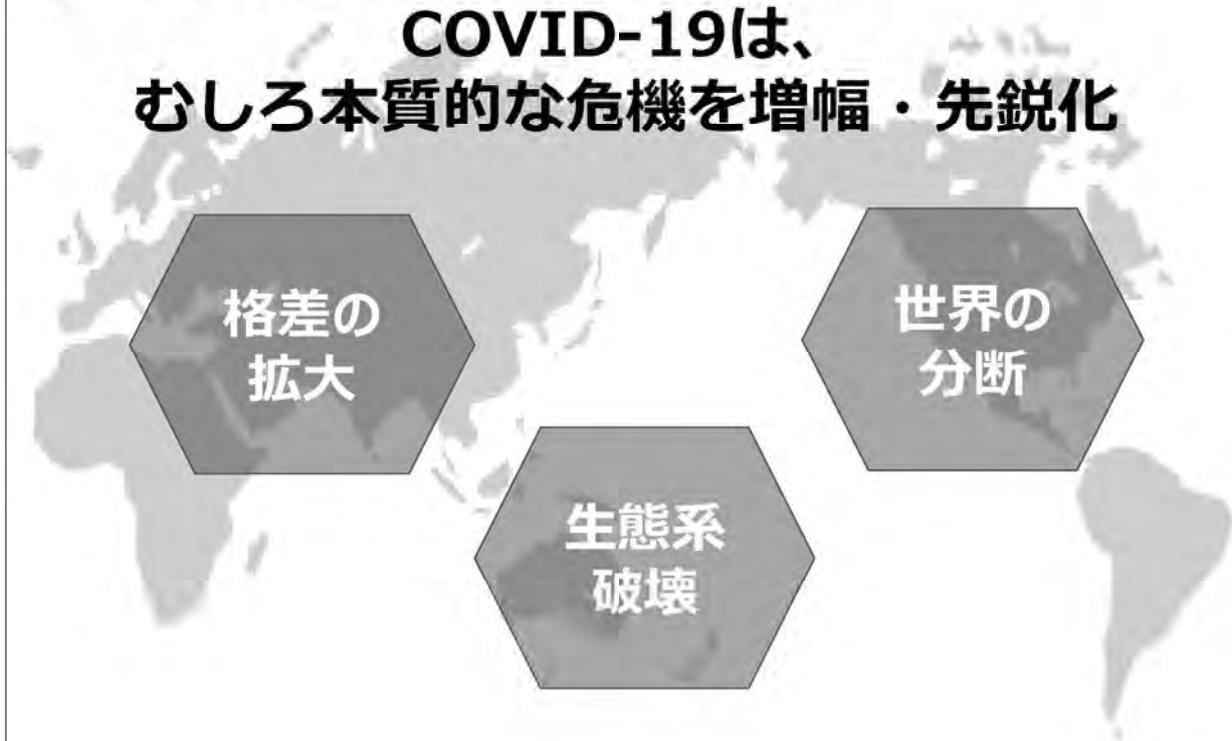
世界の現状①



COVID-19は、いずれ克服

世界の現状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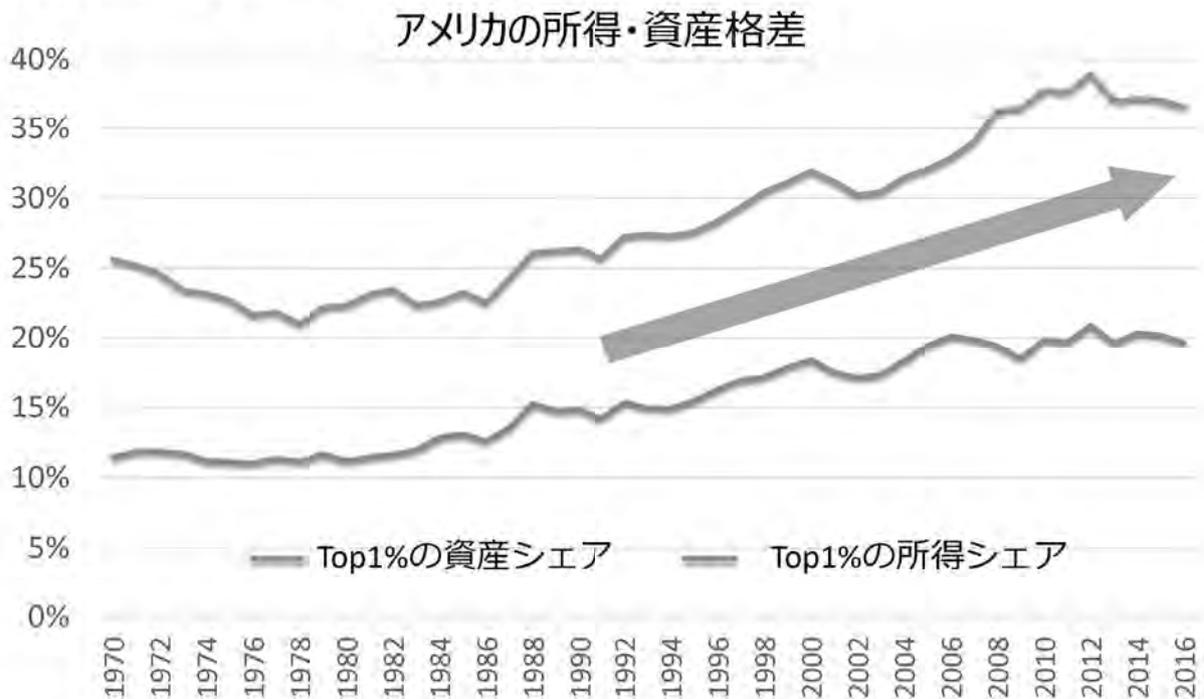
COVID-19は、
むしろ本質的な危機を増幅・先鋭化



SUMITOMO CHEMICAL

2

格差の拡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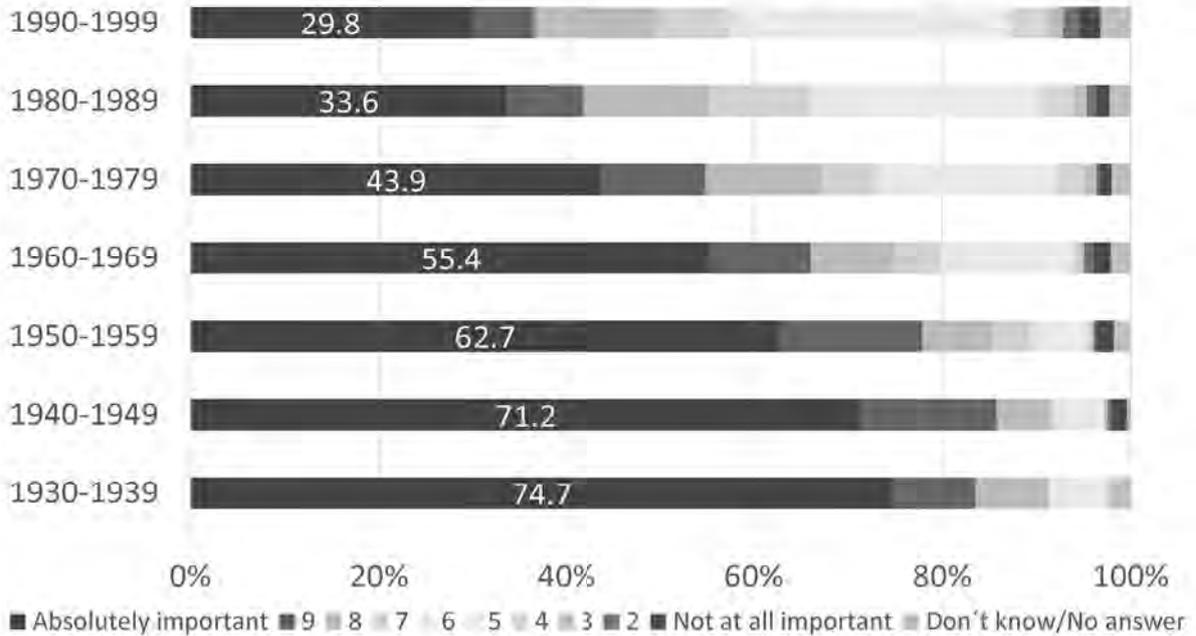
(出所 : The World Inequality Database (WID.world))

SUMITOMO CHEMICAL

3

民主主義の重要性

アメリカの民主主義の重要度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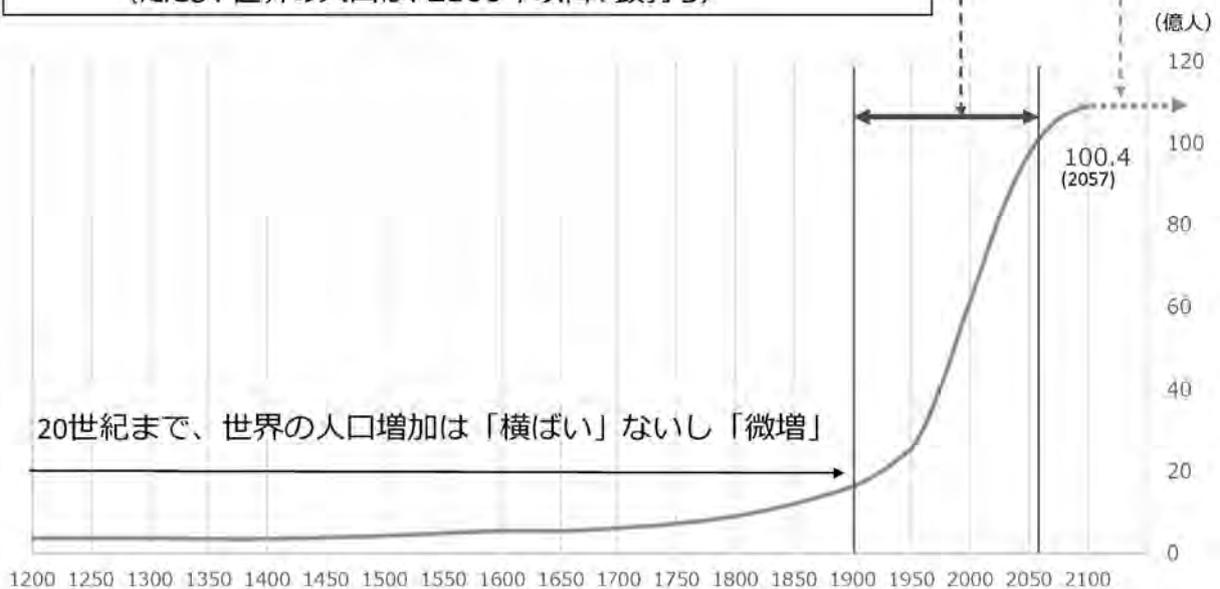
(出所:「世界価値観調査(第7版)」)

SUMITOMO CHEMICAL

4

世界の人口推移

- 20世紀以降、世界の人口は爆発的に増加(2057年100億人超)
⇒ 経済成長とともに地球温暖化など多大な外部不経済の発生
(ただし、世界の人口は、2100年以降、頭打ち)



(出所: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他)

SUMITOMO CHEMICAL

5

Sustainabilityへの関心の高まり

<p>ESG投資</p> <p>E Environment (環境)</p> <p>S Social (社会)</p> <p>G Governance (企業統治)</p>	<p>SDGs</p> <p>SUSTAINABLE DEVELOPMENT GOALS</p>	<p>パリ協定</p> <p>2015 Paris Climate Agreement</p> <p>@UNStats</p>
---	--	--

BR Business Roundtable

“Shareholder Value”（株主価値）とともに、
“Stakeholder Value”（利害関係者価値）を重視

SUMITOMO CHEMICAL

6

Society5.0のコンセプト

<p>Digital Transformation (Data Driven Solution)</p>	<p>×</p>	<p>Diversity & Inclusion</p>
--	----------	----------------------------------

イノベーションによる課題解決・価値創造

Society 5.0

—ともに創造する未来—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ITOMO CHEMICAL

7

住友化学の事業

■ 医薬品

医療用医薬品事業、診断用医薬品事業等



■ 石油化学

合成樹脂、合成繊維原料、工業薬品等



■ 健康・農業関連

農薬、肥料、飼料添加物、
殺虫剤、医薬原体・中間体等



■ 情報電子

偏光フィルム、カラーレジスト、
高純度薬品、化合物半導体等



■ エネルギー・機能材料

アルミナ、アルミニウム、高分子添加剤、
スーパーエンジニアリングプラスチック等



SUMITOMO CHEMICAL

8

住友化学の事業精神

「自利利他 公私一如」

住友の事業は、自身を利するとともに、
国家を利し、かつ社会を利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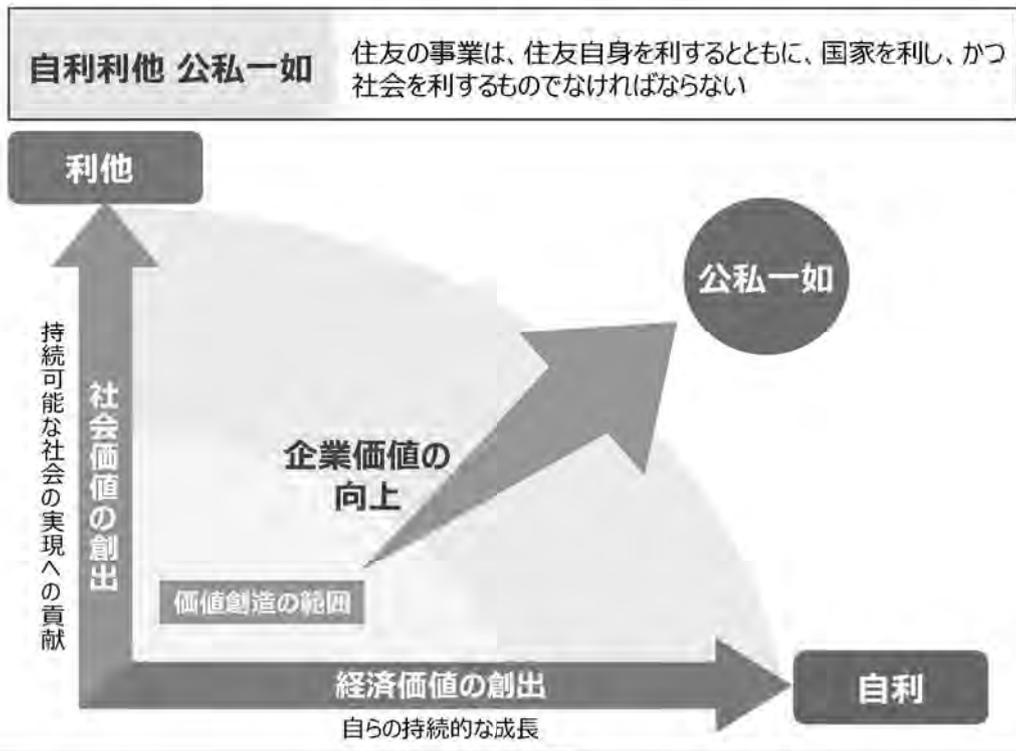
住友化学の発祥 = 「環境問題の解決」と「農産物の増産」



SUMITOMO CHEMICAL

9

企業価値向上のイメ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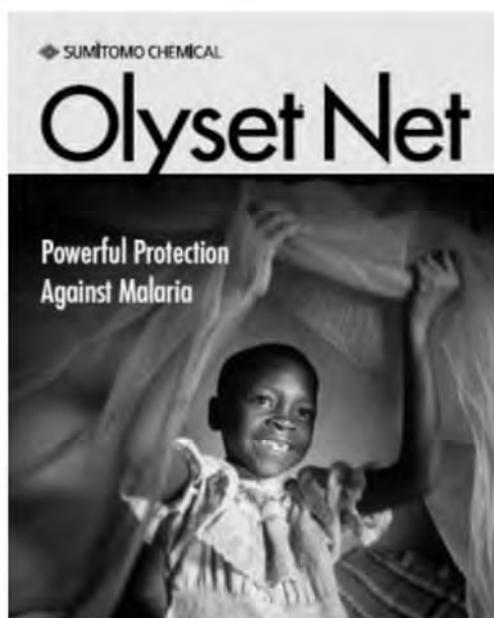


SUMITOMO CHEMICAL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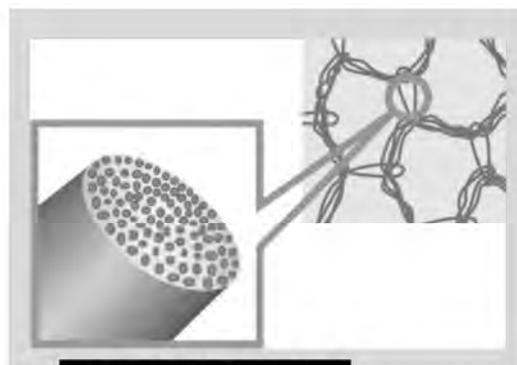
オリセツト®ネット①

初の長期残効性防虫蚊帳LLIN(Long Lasting Insecticidal Nets)としてWHOから推奨



ハマダラカ (マリアのベクター)

- 血を吸うのはメス
- 夜行性→蚊帳が有効



ペルメトリン含浸

SUMITOMO CHEMICAL

11

オリセット®ネット②

感染症対策

マラリアによる死者数が2000年から半減。

13 次疫発症前に
個体的な対策を



3 すべての人に
健康と福祉を



統合的
解決

雇用・ ジェンダー平等

現地生産により7,000人の
雇用を創出。
女性の就業環境整備。

8 働きがいも
経済成長も



5 ジェンダー平等を
実現しよう



教育支援

収益の一部で教育支援。アフリカ12か国で、28のプロジェクト、総受益者数21,000人超。

4 質の高い教育を
みんなに



SUMITOMO CHEMICAL

12

未来志向の日韓関係①

共通の
価値観

民主
主義

自由
貿易

市場
経済

共通の
課題

少子
高齢化

人口
減少

乏しい
資源

環境・
ITルネサンス
問題

SUMITOMO CHEMICAL

13

未来志向の日韓関係②

【自由民主主義指数 (Liberal Democracy Index)】

- 自由民主主義の理想がどこまで達成されたかを指数化したもの。
- 市民の自由、法の支配、司法制度、行政権の行使、選挙制度などを考慮して指数化。
- 主要な先進国の0.7以上で、濃い青色の地域は、民主主義指数が高い。



アジア地域において、自由民主主義指数が高いのは、日本と韓国のみ

0 0.5 1

(出所：V-Demのオープンデータより作成。 <https://www.v-dem.net/en/analysis/MapGraph/>)

SUMITOMO CHEMICAL

14

未来志向の日韓関係③

現
状

世界の分断

生態系破壊

未
来
の
方
向

国際協調

サステナビリティ

正義・公正 /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日
韓
関
係

【共通の価値観】

価値観を共有する日韓
両国による国際協調

【共通の課題】

共通の課題を解決する
サステナビリティの具体化

SUMITOMO CHEMICAL

15

未来志向の日韓関係④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

- 日本と韓国との友好協力関係の発展を目指した共同宣言。
- 1998年10月8日、**金大中大統領と小渕恵三首相**との間で署名。



(出典：首相官邸HP (<https://www.kantei.go.jp/jp/obutisouri/profile/accomp/accomp03.html>))

- 日本と韓国が、21世紀に向けて、**政治、安全保障、経済及び人的・文化交流などの幅広い分野で、未来志向の関係を構築することを確認。**

SUMITOMO CHEMICAL

16

未来志向の日韓関係⑤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
⇒ 「未来志向の日韓関係」



Society5.0 for SDGs 「ともに創造する未来」

日韓両国の企業は、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構築するべく、協力して、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し、社会課題を克服していく。

SUMITOMO CHEMICAL

17

義 我

SUMITOMO CHEMICAL

10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第3国における 日韓企業の連携と現地貢献

日刊工業新聞社
代表取締役 井水治博

THE NIKKAN KOGYO SHIMBUN

これまでの実施実績

NO	日程	実施先	参加者		主な訪問先
			日本	韓国	
第1回	2013年1月20日 - 25日	インドネシア（スラウェシ島） タイ（ナワナコン）	27名	15名	ドンギスノロ（LNG）、山丸タイ、 東レタイ
第2回	2014年2月23日 - 27日	ミャンマー①（ヤンゴン）	29名	19名	ミンガラドン工業団地、ティラワ工業団地、 タケタ火力発電所
	2015年2月25日 - 27日	ミャンマー②（ヤンゴン）	12名	1名	JETRO、KOTRA、三菱UFJ、みずほ、 三井住友、新韓銀行、MJTD
第3回	2015年11月14日 - 17日	モンゴル①（ウランバートル）	5名	-	日本大使館、日本商工会議所、JDA、 第4石炭火力発電所
第4回	2017年7月18日 - 21日	モンゴル②（ウランバートル）	16名	11名	日本大使館、韓国大使館、新ウランバートル国際空港、 第4石炭火力発電所、Everyday Farm
第5回	2018年10月23日 - 26日	ベトナム（ハノイ）	18名	10名	サムスン電子、タンロン工業団地、 ベトナム日本人材協力センター

参加人数
163名

THE NIKKAN KOGYO SHIMBUN

産業情報の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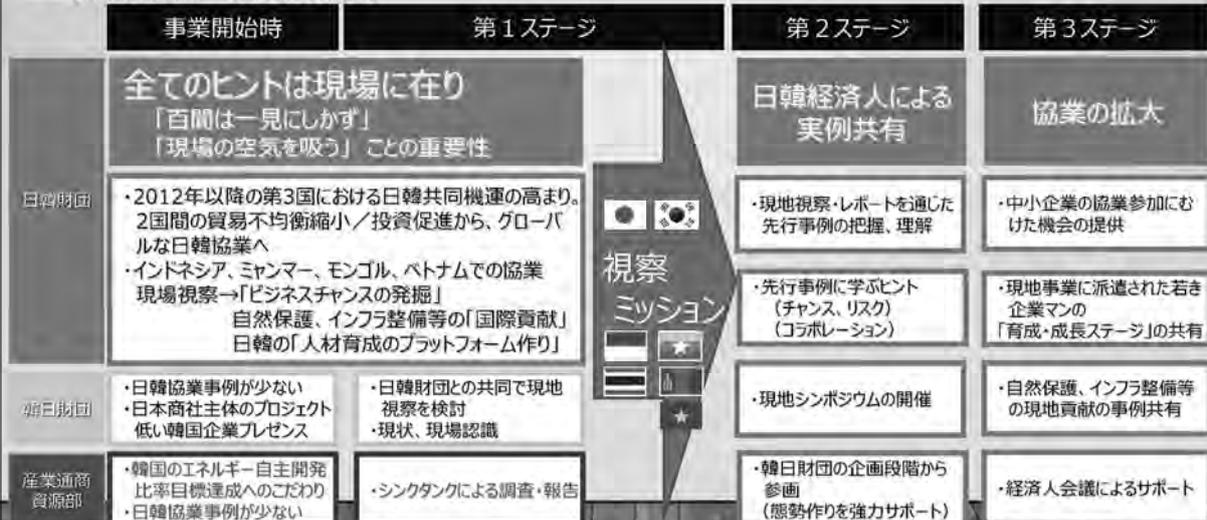
THE NIKKAN KOGYO SHIMBUN

1つの経済圏構築の一環としての、日韓の『第三国グローバル展開』

目的 日韓協業を選択肢の1つとして認知を広げる。

- 成功事例を紹介し、日韓経済界に広く広報することにより実現する
- 日韓は「時にはパートナー、時にはライバル」であり、連携の適否は独自の企業判断。日韓連携は選択肢の1つにとどまるため、提携成立までは事業に含まない。

・ 現状認識・今後の展開



THE NIKKAN KOGYO SHIMBUN

アジア勢だけでのプロジェクト：インドネシア・スラウェシ島



THE NIKKAN KOGYO SHIMBUN

日韓連携による新たな協業を模索：ミャンマー



THE NIKKAN KOGYO SHIMBUN

そして次回は・・・マレーシアでの協業を視察



THE NIKKAN KOGYO SHIMBUN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THE NIKKAN KOGYO SHIMBUN

第52回 韓日経済人会議 発表資料

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とGVCの変化

2020.11.27

チョン・グヒョン

(J Campus 代表研究員)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

- すでに進行中、あるいは既知の問題/トレンドを浮き彫り/加速化
 - ・ デジタル化/オンライン化/非対面取引の拡大(DX)
 - ・ 貧富の格差の深刻さが浮き彫りに
 - ・ 反グローバル化/保護主義/自国中心主義の強化
 - ・ 米中の覇権争いが過熱化
- 新たな局面
 - ・ 先進国、後進国、開発途上国といった概念が混乱
 - ・ 国家の役割が拡大/プライバシーといった概念の弱体化
 - ・ 人類に対するグローバル・リスクが浮き彫りに: 気候変動の脅威などの認識が高まる
 - ・ 東アジアの目に見えていなかった強みが浮き彫りに/自負心が高まる

新型コロナが保護主義と国際分業（GVC）に及ぼす影響は既に進行中だったトレンドを加速化

➤ GVCの弱体化傾向は既に進行していた（2010年頃から）

➤ どのような理由でGVCが縮小したのか？（2019年、McKinsey報告書）

- ・ 経済の性格が変化（2000年以降）：サービス化/知識中心の経済
 - ・ 貿易集約度が低下/商品とサービスの重要性が逆転
 - ・ 知識集約度が上昇：知的資産が企業の競争力を左右/労働の重要性が低下
 - ・ 技術の進歩（自動化、AI、3Dプリンティング）によって生産の分節化が縮小
- ・ 中国の台頭（2010年以降）：貿易依存度が低下/企業の力量が上昇
 - ・ 中国経済の成長と内需が占める比重が増加
 - ・ 中国の製造業：組立てから総合製造業に発展
- ・ 新保護主義（2008年以降）：米国が守勢に
 - ・ 2008年の大不況後、保護主義傾向が強まる
 - ・ トランプ大統領の登場以降、米中貿易戦争が勃発

201127

新型コロナウィルス禍とGVC

主な質問

1. 新型コロナにより保護主義的傾向がより強化されるのか？
2. 米中の覇権争いがGVCにどの程度の衝撃をもたらすのか？
3. 世界経済は3～4つの地域分業体制（RVC）に転換するのか？
4. 東アジアの分業体系（RVC）の将来像は？
5. 新たな国際環境と韓日企業間の協力策は？

201127

新型コロナウィルス禍とGVC

4

新型コロナによって保護主義は強まるのか？

➤ コロナ禍以前の状況

- ・ 米中貿易戦争(関税賦課): 2020年1月に中断合意
- ・ 米国の自国中心主義(TPP脱退、鉄鋼/アルミニウム輸入規制など)
- ・ 世界的に保護主義的傾向が拡散(ダンピング規制の拡大など)
- ・ WTOの機能低下(上訴機構が無力化)

➤ コロナ禍後の状況

- ・ 輸入規制の拡大
 - 医薬品と医療設備の輸出規制
 - 国家安保を理由とする輸入規制(米国: 変圧器、クレーンなど、インドなど)
 - ダンピング販売増加
- ・ 直接投資規制
 - インド、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米国などの国家が外国人投資を制限(一部は時限的)
- ・ 目国企業支援/補助金や一部産業の国有化(航空運輸業)
- ・ 国内生産(reshoring)拡大を誘導
 - EUは製薬業、米国は医療設備/医薬品、日本もUターン会社に補助金

01/19

新型コロナのリスクとGVC

米国の中国に対する規制拡大

➤ 中国企業に対する規制

- ・ Huaweiに対する、米国の技術/装備を利用した半導体の供給を中断
- ・ Huawei、ZTE、China Mobileの米国内での営業を制限(2021年5月まで延長)
- ・ 敵性国からの電力網輸入を禁止する行政命令(5月1日)

➤ 米国企業の海外生産に対する規制

- ・ 海外生産を行う米国企業に対する税金賦課に言及
- ・ アップルは中国国内での生産の一部を台湾、インドに移転

➤ 第3国企業に対する中国事業の規制/供給規制

- ・ TSMC、サムスン電子などに対し米国内での生産を誘導

➤ 中国に対する投資制限

- ・ 米国年金基金に対し対中投資の中止を命令
- ・ 「外国企業説明責任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が上院通過(5/20)→中国企業が標的

➤ 貿易合意(1月合意、2月発効)破棄をめぐる論議

- ・ 1/4期に両国の輸出入が大幅減少; 米国の対中輸入は28.4%、輸出は15.4%減

➤ 為替操作に対する規制

- ・ 為替操作に対する報復措置(相殺関税賦課)規定改正(2月4日)

01/19

新型コロナのリスクとGVC

中国の米国に対する報復および規制

- 米国の中国国内の事業を規制
 - ・「信頼できない企業」リスト作成
 - ・ボーイング社、航空機などの購入中断
- 中国企業の米国株式市場への上場を廃止
 - ・米国株式市場に上場した中国企業の数200社余り
 - ・「聚美優品」(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チャンユー」(ゲーム)などが既に上場廃止に
 - ・米国株式市場に上場した19社の中国企業が香港株式市場への上場を準備
- 保有中の米国債の売却または国債購入縮小
 - ・中国の米国債保有額は減少傾向(\$1,181.9 b. in '18.3→\$1,120.5 b. in '19.3→\$1,090 b. in '20.2)→2020年3月にも\$200億売却
 - ・人民銀行:「漸進的に外貨保有の運用を多元化する」と発表(1/3)

事例研究:半導体産業

- 米国商務省の輸出規制(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中の 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を通じ
 - ・米国の半導体装置や技術を活用し製造された半導体製品のファーウェイへの販売を許可制とすることを発表(5.15発効)
 - ・この措置は、TSMC(世界最大のfoundry会社)からファーウェイの子会社(ハイシリコン)に対する供給に影響を及ぼす見通し
- 今回の措置は、メモリー半導体より非メモリー事業(特にfoundry)に影響を及ぼすものと予想
 - ・世界の5大半導体装置会社のうち3社が米国系:韓国企業が米国Lam Researchの装置を使用しNANDフラッシュメモリを生産する場合に適用されるのか?
 - ・メモリー半導体は規格化されたcommodityであるためDRAMやNANDなどのメモリー製品は米国の輸出制限の対象にはならないと判断される
 - ・しかし、サムスン電子やハイニックスが今後拡大しようとしているfoundry事業は影響を受ける可能性あり-TSMCは米国を選択したようだ(米国・ファブに投資中)

米国の新地域主義(EPN)は実現可能か?

- 米国、Economic Prosperity Networkを提案
 - ・ ポンペオが4/29に提案—今のところ形態(FTA?)や内容はあいまい
 - ・ 7ヶ国が主導する反中国経済連合?: 米、豪、インド、日本、NZ、韓国、ベトナム
- 米国の立場
 - ・ 2017年の就任後ただちにTPPを脱退した米国が新たな排他的地域主義を提案したのは矛盾
 - ・ すぐには実現不可能だけでなく、各国の利害が相反
- 既存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深く根を下ろしており短期間の変化は困難
 - ・ 企業は安保/リストも考慮するが費用と効率性も無視できない
 - ・ 米国企業も供給源を分散させて規制に対応; 中国から第3国に生産拠点をシフト

0101

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

世界経済が3つのリージョナル・バリュー・チェーン(RVC)に?

- サプライ・チェーンにおいて安保(安定した供給)要因が原価/効率に追加され
 - ・ 各国が一部品目において一定部分の国内生産を義務化
 - ・ 同時に海外生産の国内移転(reshoringまたはU-turn)を促し支援
- 本国帰還(reshoring)の限界
 - ・ 米国国内は生産基盤が脆弱(労働者と供給業者が不足)
 - ・ 生産工場の建設に長時間を所要
 - ・ 近くの低生産国に移動(nearshoring)
- 部分的に地域中心の生産分業に転換
 - ・ 米国はUSMCAを中心に原産地規制→メキシコが恩恵を受ける
 - ・ EUもドイツを中心にEU内の隣接国に生産拠点を部分的に移転
 - ・ アジアもASEAN(AEC)を中心に北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中心の分業を活性化

0101

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

しかしGVCは非常に根が深い

➤ 国際分業の歴史

- ・ 国際分業は1970年代初めにoffshoring(海外下請生産)で本格化
- ・ 1970年代初め、米国の輸入商/大型小売商が労働集約型の軽工業(衣類、靴、雑貨など)製品を東アジアで下請生産
- ・ アジアの四小龍(韓国、台湾、香港、シンガポール)がそれを土台として発展
- ・ 下請会社は組立(assembly)に特化:OEMモデル

➤ GVC本格化

- ・ 1980年代初めから東アジアでPCを組立ておよび生産(特に台湾が台頭)
- ・ 複合GVC(3つ以上の国家が参加し、国境を2回以上移動)が発達
- ・ 1992年に中国が全面開放を行い国際分業が加速化
- ・ 1991-2010年の20年間でGVCの全盛期
- ・ 二つの要因が大きく作用:情報化と中国の開放(低賃金な労働力)

09/17/21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とGVC

10/17

GVCの長所と弱点

➤ 特化と効率性

- ・ 市場経済の強み(アダム・スミス):分業と特化
- ・ GVCはグローバルレベルで特化と分業
- ・ 最も有利な場所で経済活動を実行
- ・ 自由貿易を通じたグローバル生産の最大化:最も効率的な資源配分
- ・ 産業内取引の拡大と国際的な垂直分業

➤ 相互依存度の高まりと弱点

- ・ 貿易において部品と素材の比重が高まる
- ・ 外部的な衝撃に脆弱:保護主義、戦争、疾病(新型コロナウイルス)
- ・ 米国と中国の間でも高い相互依存度を形成
- ・ 特にIT産業に関して東アジア4ヶ国の相互依存度が非常に高い

09/17/21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とGVC

10/17

東アジア地域の生産分業(EAVC)の姿

➤ 東アジア地域のバリュー・チェーン(EAVC)の歴史

- ・ 第1段階(日本主導の時期、1970-1990): 日本の部品/素材を4小龍が組立/輸出
- ・ 第2段階(複合分業の時期、1991-2010): 日本と韓国、台湾が部品を供給し中国で組立て第3国に輸出
- ・ 第3段階(中国主導の時期、2011-現在): 中国が世界の製造業トップに浮上し賃金が上昇する中で北東アジアの4つの経済と東南アジアの9つの経済が新たな分業体制を構築

➤ 新たなEAVCの姿は?

- ・ 米国の保護主義を避けようと北東アジア企業がASEANに生産拠点をシフト
- ・ 米国とEUのグローバル企業も米中対立を迂回しASEANにシフト
- ・ ASEAN内で既存の5ヶ国と新興4ヶ国(CLMV)がインフラと力量を強化
- ・ 北東アジアの4つ経済とAEC(ASEAN)の補完的な力量を代替することは困難
- ・ 「中国が主導する東アジア地域の生産分業」が世界の製造業の主力に浮上

010

新環境下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GVC

新たな環境: D10提案と脱中国GVCの構築

• 英国のD10提案

- 2020年のG7首脳会談中止と英国(Boris Johnson)の提案
- D10 = G7 + 韓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
- 二つの具体的案件を提示: 5G通信網での協力 + 新たなサプライ・チェーンの形成(後者は核となる製品の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中国を除外することを意味する)
- 2021年は英国がG7主催国となるため、現在G7の他国を説得中
- 提案が具体的なため反対する名分はそれほど多くないと思われる

• 果たしてGVCのdecouplingは可能なのか?

- 5G通信装置に関し中国のHuawei、ZTEを排除、部品と素材においても中国企業排除
- 医療設備や医薬品など、戦略的/必須な製品に関し脱中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構成
- そうした「脱中国GVC」は新たな提案だが、果たしてfeasibleだろうか?

011

新環境下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GVC

相反した推移：EAVCの台頭と脱中国GVC

➤ 韓国の主力製造業におけるEAVCの意味

- ・ 韓国の輸出全体に占めるアジアの割合は62.3%(2018年)
- ・ 韓国の対アジア輸出に占める中国とASEANの割合はそれぞれ42.5%と26.3%
- ・ グローバル企業は3地域のvalue chainに全て参加
- ・ 多くの中堅/中小企業は東アジアVCに積極的に参加すべき

➤ 東アジアでの韓国と日本の立ち位置

- ・ ASEANに対するサプライ・チェーン(2015年)における順序は、域内(30.4%)、中国(14.5%)、日本(10.8%)、韓国(6.2%)となっており、すでにかなり多角化されている
- ・ ASEANは中国と日本の激戦地だが、いまや世界の企業が進出
- ・ ASEAN向けFDI流入額(2013-2018年)は、日本、ASEAN、中国、韓国の順
- ・ 新興4か国(CLMV)とインドネシアが韓国企業にとってはやや有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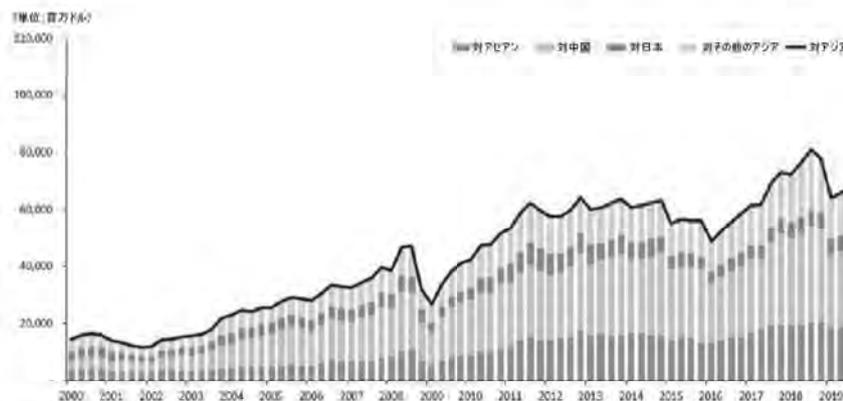
20/10

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とEAVC

10

資料1. 韓国のアジア向け中間財輸出

(韓国の輸出全体に占める中間財の割合は71.4%、アジア向け輸出に占める中間財の割合は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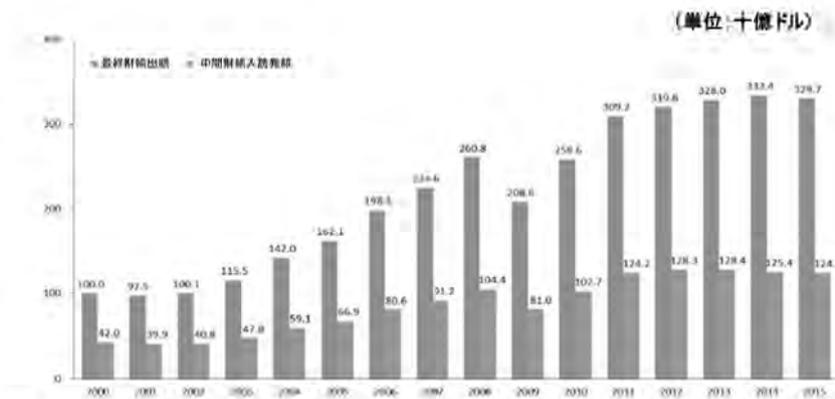
(資料: 韓国金融研究院)

20/10

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とEA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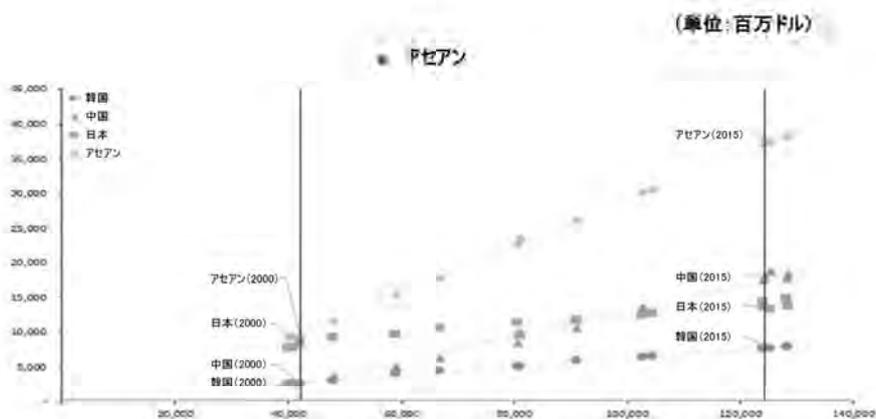
10

資料2. アセアンの最終財輸出額および中間財輸入誘発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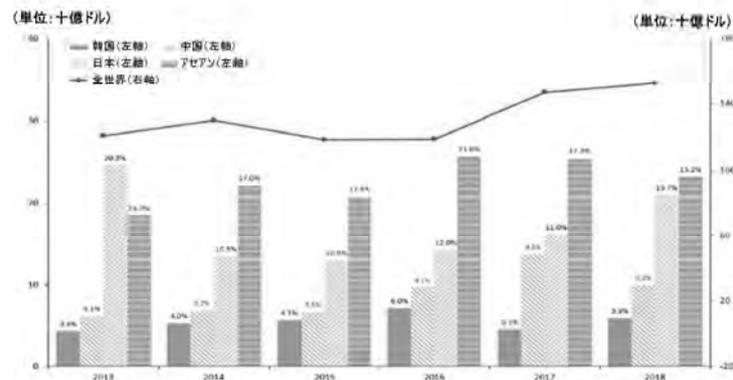
(資料:韓国金融研究院)

資料3. アセアンの域内および韓中日サプライ・チェーン



(資料:韓国金融研究院)

資料4. アセアンの域内および韓中日FDI



注: 1) FDI流入額は各国および全世界からアセアンに流入した金額。全産業ベース。
2) %はアセアンに流入する全世界FDI流入額に対する各国からの流入額の比率

(資料・韓国金融研究院)

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とGVCの変化:まとめれば・・・

- 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はこれまでのトレンド(保護主義と米中対立)を加速
- とりわけ米国は中国を孤立させようと様々な努力をするはず。
- 中国はすでに世界最強の製造業を有しており生産拠点を多角化している。
- バリュー・チェーンの地域化が進行すると思われるが、他地域が東アジアのバリュー・チェーン(EAVC)の規模と競争力を代替することは困難であろう。
- EAVCは中国とASEANを中心に統合が進むものと思われる。
- しかし西側の脱中国GVC構築に向けた努力は新たな試み
- 韓日は重大な選択の岐路に立っている: EAVC vs. GVC decoupling

参考資料

国際貿易院(2020)、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のパラダイム変化と韓国貿易の未来
対外経済政策研究院(2020)、新南方地域のバリュー・チェーン分析と交易拡大および高度化策
対外経済政策研究院(2016)、アセアン経済の統合と域内貿易投資構造変化の分析および示唆点
KOTRA(2019)、新南方主要国のバリュー・チェーン活用戦略
韓国金融研究院(2020)、グローバル交易の動向と生産基地としてのアセアン
韓国貿易協会(2020)、ポスト・コロナ時代の通商環境の変化
OECD-KDI共同、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政策対話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Globalization in Transition: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関連記事

地域貿易協定が加速…域内バリュー・チェーンの上位部門を先取りすべき

<https://www.mscnnews.co.kr/news/5145532>

新型コロナで世界の保護貿易主義が進むとの見通し相次ぐ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47679

米国の交通インフラ「自国産優遇政策」強化の動きに伴う機会と展望

<http://okfta.kita.net/mobile/news.do?method=viewReferData&idx=36183>

[ポスト・コロナ]の専門家、「新型コロナで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が変化するだろう」<https://www.ajunews.com/view/20200506070904882>

新型コロナで世界の保護貿易主義が進むとの見通し相次ぐ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47679

米国の交通インフラ「自国産優遇政策」強化の動きに伴う機会と展望

<http://okfta.kita.net/mobile/news.do?method=viewReferData&idx=36183>

コロナ後の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の前景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ree-trends-shaping-post-pandemic-global-economy-by-dani-rodrik-2020-05>

米国の対中デカップリング進行によりメキシコの製造基地が急浮上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c=26887>

コロナで揺れる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短くなり広がるだろう」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4/447423/>

KOTRA、新型コロナが呼び込む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の変化

<https://news.kotra.or.kr/User/global/8b9/kotraneews/5/global/8b9/DataView.do?setIdx=244&dataIdx=181274>

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の中心に「中国」に代わって「メキシコ」が

<http://www.kidd.co.kr/news/215848>

ASEAN Logistics: Exploring the new frontier

<https://supplychainminded.com/asean-logistics-exploring-frontier>

COVID19下の在韓日本企業の現状と 今後の期待について

韓国三菱商事(株)代表理事社長
藤吉 優行
(Seoul Japan Club理事長)

Copyright © 2020 Seoul Japan Club All rights reserved.

・目次

1. **Seoul Japan Club**の活動について
2. **COVID19**の影響と現況
3. **Seoul Japan Club**と釜山日本人会のアンケート結果について
4. アンケート結果で浮き彫りになった日韓経済連携の特徴
5. 日韓ビジネス交流の重要性と今後の期待
6. 最後に

Copyright © 2020 Seoul Japan Club All rights reserved.

1. Seoul Japan Clubの活動について

Seoul Japan Club (SJC) は、1997年に三つの日系団体（ソウル日本人会・ソウル日本商工会・JV会）の統合で設立された韓国国内最大の日本人コミュニティーで、日韓の親睦や日韓の経済・社会への貢献に資する様々な活動を展開している。

※ 会員数：法人会員約376社、個人会員約1400人強

<h3>1. 個人会員活動</h3>  <p><野球クラブ></p>  <p><婦人会合唱団></p> <p>各種文化・スポーツイベント開催、ソウル近郊の文化・景勝地訪問、各種クラブ活動を支援。</p>	<h3>2. 法人会員活動</h3>  <p><日韓経済人会議サポート></p>  <p><セミナー開催></p> <p>韓国政府への建議事項提出、法案に対する意見書提出、セミナー・研究会、日韓/韓日経済協会との連携</p>	<h3>3. ソウル日本人学校</h3>  <p>日本人駐在員子女の教育支援と学力向上のためにソウル日本人学校を設立・運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住所:ソウル特別市麻浦区 ・設置者: SJC ・開校: 1972年5月 ・地位: 私立各種学校 ・生徒数: 約300名 	<h3>4. その他社会貢献</h3>  <p><日韓おまつり・インターン修了式> 文化交流事業 日韓交流おまつり等の日韓交流事業を積極支援。 インターン受入れ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に協力し本年度はメンバー企業(23社)でインターン生(36名)を受入れ。 安全対策 日本大使館と連携し安全対策委員会を運営。セミナー開催(含、COVID19関連情報提供)。</p>
---	--	---	--

2. COVID19の影響と現状

COVID19はSJC活動や在韓日系企業の活動に大きく影響を与えてきた。



【韓国国内累積感染者情報（～10/30）】

感染者	完治者	死亡者	致死率
26,385人	24,227人	463人	1.8%

時期	韓国政府の主要対応
2月以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感染症危機管理「探知」に引き上げ(2/23) ・ 「社会的距离確保」体系施行(2/29～3/21) ・ 「強化した社会的距离確保」体系施行(3/22～4/19)
5月以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都圏対象に「防疫措置強化」(5/29～6/14) ・ 首都圏対象「防疫措置強化」漸次延長(6/12～)
8月以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国対象「社会的距离確保第2段階」に引上げ(8/16～9/13) ・ ソウル・京畿道・小・中・初等学校閉鎖(8/18～9/20) ・ 首都圏対象に「一層強化された防疫措置(2.5段階)」実施(8/30～9/13) ・ 全国対象「社会的距离確保第2段階」維持(9/14～27) ・ 首都圏対象に「社会的距离確保第2段階」に緩和(9/14～9/27) ・ 秋夕連休を「特別防疫期間」に指定(9/28～10/11) ・ 社会的距离確保1段階に緩和(10/12～)

SJC行事の中止

名勝探訪、歴史巡見、奉仕活動、スポーツ大会等軒並み中止。恒例の忘年会も中止を決断。

業務・イベント開催の変動

日韓交流おまつりオンライン化。また、会員企業の在宅勤務実施でインターン受入れに一部支障。

ソウル日本人学校の教員交代

ソウル日本人学校新任教員の着任遅れでオンライン授業・間引き登校。大使館ご協力も得て世界に先駆けて新任教員の派遣実現。

ビジネス往来への支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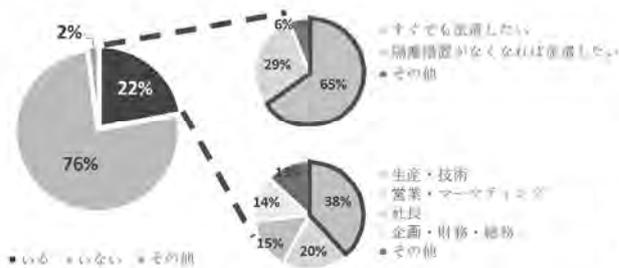
SJC法人メンバーの企業活動に影響。日本からの出張、駐在員派遣・交代の停滞、韓国人スタッフの研修・出向停滞。

➡ 6月末に関連アンケート実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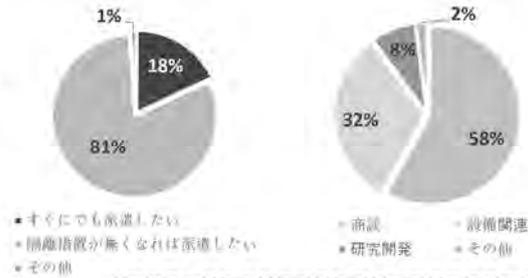
3. Seoul Japan Clubと釜山日本人会のアンケート結果について(1)

SJCでは、6月末に釜山日本人会と共同で在韓日系企業441社を対象にして「日韓渡航に関する緊急アンケート」を行った。その結果を7月に日韓両国政府（駐韓日本大使、外国人投資オブズマン）へ提出した。

【ポイント1】韓国への駐在員派遣ニーズと目的



【ポイント2】韓国への出張者派遣ニーズと目的



入国規制が本格化した3月以降、6月時点で93人が既に入国済み

22%の企業が新規駐在員の派遣の必要があり、その内65%の企業が早急に派遣の必要があると回答し、職務は生産・技術関係者(38%)がもっとも多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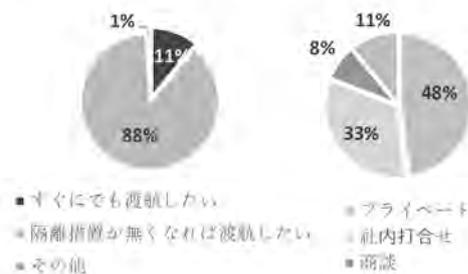
大半の企業が韓国への出張者派遣の必要性ありと回答し、その目的は商談と設備関連で大半を占める。日韓のビジネスが、緊密で頻繁な往来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

3. Seoul Japan Clubと釜山日本人会のアンケート結果について(2)

【ポイント3】韓国人の日本への渡航ニーズ



【ポイント4】日本人駐在員の日本への渡航ニーズ



韓国人の日本派遣（出張・駐在両方）の需要も高いが、日本の入国規制や14日間の隔離措置等が障害となっている。

日本人駐在員の大半が、日韓が物理的に近く、往来が便利であることを前提として業務も生活も成り立させている。隔離措置が負担となり、移動ができず公私に負担がある。

4. アンケート結果で浮き彫りになった日韓経済連携の特徴 (1)

1. 近い距離とAccessibility

日帰りも可能な近距離の隣国向上という日韓の特性を活かし、営業・技術サービスの両面での、頻繁且つ大規模な人的往来が、日韓両国企業は緊密な連携関係を支えている。

また、両国企業の連携は、日本と韓国に留まらず、進出先である近隣の中国や東南アジア等も含めた地域連携へと進展している。

2. 代替が容易でない技術連携

入国時・帰国時の隔離義務といった不便にもかかわらず、多数の日系企業の技術者が日数を費やしてVISAを取得し、一部は韓国取引先企業からの強い要請と支援があり、韓国政府からの隔離免除許可を特別に得て、日本から来韓していたという現実がある。

3. 双方向性

日系企業のみならず韓国企業にとっても渡航ニーズは高い。

日韓両国企業が双方向の緊密な往来による交流で、両国ビジネスが支えられている。

【参考】韓国「全国経済人連合会」の調査（韓国国内339社対象、6月実施）

質疑1. 日韓入国制限による悩み	回答比率	質疑2. 日韓ビジネス改善の為の希望	回答比率
現場訪問及び管理の面	44.9%	中国と同様、マスク導入	43.6%
専門人材の交流の面	13.5%	政治的な発言・報道の目録	30.9%
取引先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面	13.5%	両国間の輸出規制の緩和	10.6%
新規取引先発掘の面	7.9%	両国の物流・輸送環境の改善	7.4%
事業プロセスの遅延	6.7%	非政治的な民間交流の拡大	3.2%
現場での消費者認識の変化の面	5.6%	相互歴史・文化の理解	1.1%
その他	7.9%	その他	3.2%

4. アンケート結果で浮き彫りになった日韓経済連携の特徴 (2)

- アンケート結果を、7月中旬に日韓両国政府関係者（駐韓日本大使、外国人投資オンブズマン）へ提出。
- 両国間ビジネスが緊密な往来で支えられている現実を報告の上、十分なるCOVID19感染を施す前提での、円滑な日韓のビジネス往来の再開を要請した。



5. 日韓ビジネス交流の重要性と今後への期待

日韓ビジネストラックの実現

10月8日から日韓の「ビジネストラック」が実現され、一定要件を満たせば2週間の隔離無しでビジネス出張可能。

羽田・金浦航路の復活

9月末、SJCとして駐韓日本大使と外国人投資オンプズマンに羽田・金浦航空路線復活の要望書を提出。

日韓関係改善の道へ



緊密なビジネス往来で両国間ビジネスが支えられている現状。

早期のビジネス往来正常化の為の両政府間協力で関係改善の道へ。

人的交流拡大の期待

- ビジネストラック実現に関し、日韓両国政府のご尽力に感謝。ポストCOVID19に向けた経済活性化に向けて、緊密な人的往来で支えられている日韓経済会には、ビジネス交流の加速化は必須。更に一層円滑な渡航プロセスに向けた対応を期待したい。
- 両国間往来につき利便性の高い羽田・金浦航路の早期の復活で一日も早い両国交流の正常化、経済活動の活発化を期待。

6. さいごに

- 緊密なビジネス往来で両国ビジネスが支えられている現状を実感。
- ポストCOVID19の日韓両国の経済活性化の為には、永年積み上げた資産である日韓ビジネス連携を、最大活用することが合理的で最短の道。
- 更には、ビジネス往来のみならず、観光と留学等の民間交流も回復し日韓両国間の人的交流のあるべき姿へ進展することを期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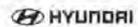


水素社会の到来とビジョン2030



現代自動車 燃料電池事業室長
 パク・スンチャン 常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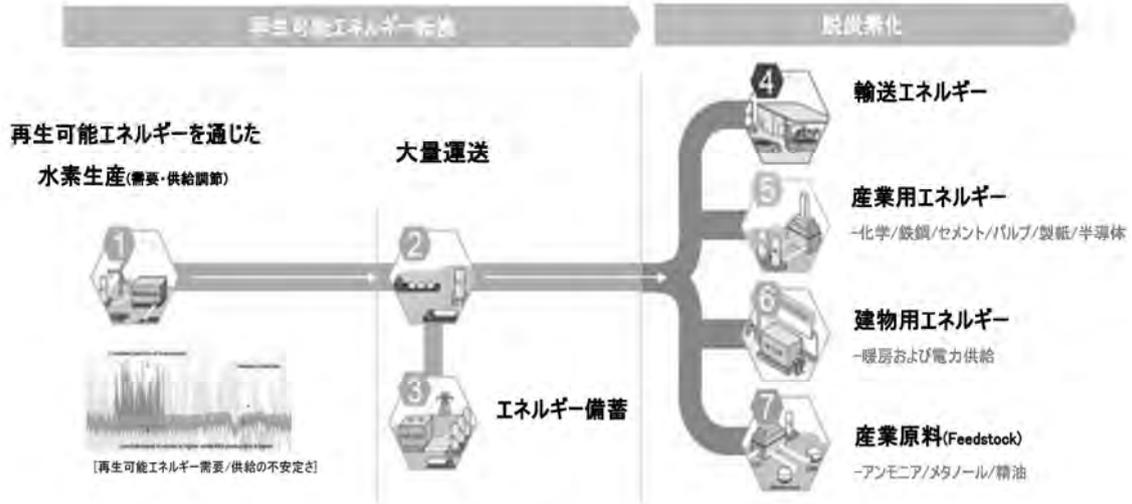
「パラダイムの変化」と「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



ジェレミー・リフキンは『グローバル・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2020)』で、産業革命の条件としてネットワーク、動力源、運送メカニズムを提示し、2020年現在、効率の極大化を通じて生産・リサイクルを限界費用ゼロに取れんさせ炭素排出を削減すべきと主張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電気転換、大量運送、貯蔵を通じ多方面に活用



水素経済の本格的な活性化

水素が次世代エネルギーとして浮上しており全 Value chain で活性化するものと予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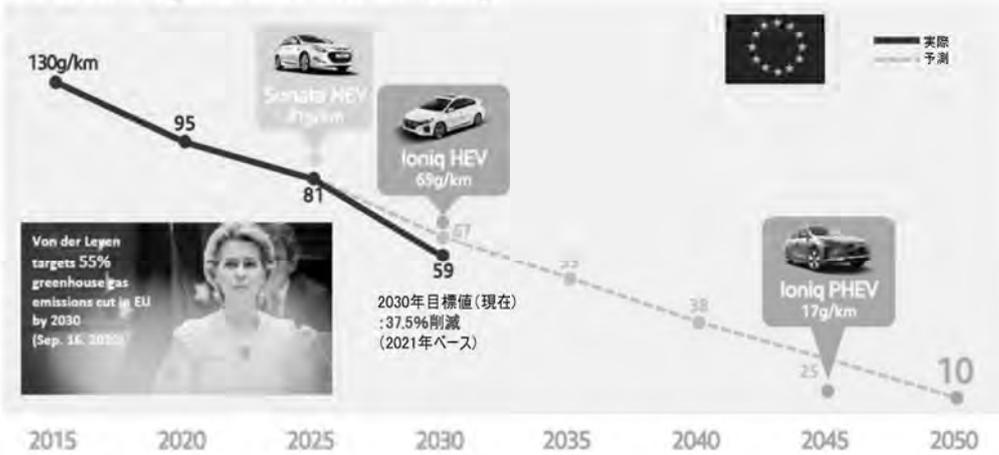
区分	ヨーロッパ	ドイツ	韓国	中国
ビジョン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水素戦略('2007) 約€4,600億をInfraに投資(~'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国家水素戦略('2006) €200億支援計画(~'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素経済ロードマップ('1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素イニシアチブ宣言('17)
生産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GWの水電解装置設置 年間1千万トンのグリーン水素生産(~'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電解設備の拡充推進 '30年5GW → '50年10GW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電解を通じた大規模な水素生産('40) - 生産量526万トン/年 - 価格3,000ウォン/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再生可能エネルギー、メタン改質などを通じた水素製造技術を重点開発
流通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天然パイプライン改造、水素運送 ヨーロッパ内の国家間輸送pipeline 拡充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既存パイプライン5,900kmの水素運送用への再整備計画 	<ul style="list-style-type: none"> パイプラインの全国網構築および液化技術の開発を通じた大規模流通推進(~'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長距離運送のための技術開発 高圧気体運送(~'25) → 液体水素運送(~'35)
充填 インフ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全域の道路運送部門のための充填所拡大(~'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欧州最多の水素充填所運営(7ヶ所) 1,000ヶ所拡充を目標(~'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素充填所拡大 '20年 33ヶ所 → '30年 310ヶ所 → '40年 1200ヶ所以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素充填所拡大計画 1,000ヶ所拡充(~'30)
活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バス、タクシー、鉄道中心から'50年までに船舶、航空機への適用拡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エコモビリティ関連予算 €36億 エコカー(ハイブリッド/電気/燃料電池)の購買補助金支給 	<ul style="list-style-type: none"> すべての警察/バスを燃料電池バスに切り替え(~'28) 船舶、列車、トローンなど活用分野を拡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燃料電池車 100万台普及(~'30)

温室効果ガス削減に向けた、自動車の燃費、排ガス関連の環境規制を継続強化

- 環境規制を満たせなかった時には販売台数に比例し巨額の罰金や車両販売禁止など強力な制裁が
- ヨーロッパの場合、2050年まで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を目指し車両環境規制が急速に強化される傾向

※最近、欧州委員長(フォン・デア・ライエン)は2030年までに最大55%まで削減すると言及(これまでは37.5%をベースに適用予定)

European Regulations on Fuel Effici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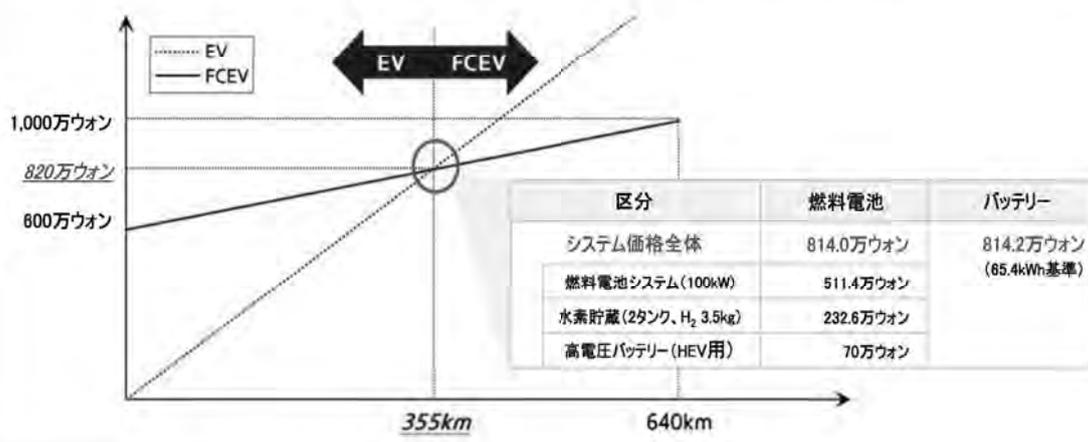
燃料電池システムとバッテリーの価格を比較すると約355kmでCost Parity発生

- 燃料電池価格 = 燃料電池システム(DOE) + 水素貯蔵(DOE) + 高電圧バッテリー(70万ウォンと仮定)

※燃費: 4車種の平均値 102.1km/H₂kgを適用(トヨタ・ミライ、ホンダ・クラリティ、現代・ネクソ、ベンツ・GLC F-C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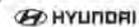
- バッテリー価格 = バッテリーシステム(\$110/kWh、ブルームバーグ資料参照)

※電費: 7車種の平均値5.4km/kWhを適用(日産・リーフ、シボレー・ボルト、テスラ・モデルX/S、現代・コナEV、ジャガー・i-PACE、アウディ・e-tron)



※日本経済産業省および米国エネルギー省 燃料電池システムの原価ロードマップ発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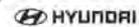
主な完成車メーカーの動向



トヨタ、M-Benz、ホンダなどを中心に燃料電池車の主導権確保に向けたし烈な競争
 - 乗用車から商用車(バス、トラック)、燃料電池システム販売など事業領域を拡大中

区分	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年に第2世代の「MIRA」を発売(‘20年12月に公開予定) - 航続距離が第1世代との比較で30%向上すると予想(現在 502 → 652 km) / 5人乗りモデル ○ BMWと協力し燃料電池車「X5 SUV」のテスト開始 ○ 静岡にスマートシティ「WovenCity」を建設、燃料電池で発電システム インフラ構築 ○ 「Toyota Inside」戦略を推進(燃料電池システムの販売拡大を目指す、当社の水素ビジョン2030と類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年に「GLC F-Cell」発売 - 水素燃料電池と外部充電が可能なバッテリーシステムが結合されたタイプ - 出力155 kW、水素貯蔵 4.4 kg、バッテリー容量 13.5 kWh、航続距離 478 km (WLTP 標準) ○ ベンツ創業保育センター-Lab 1888 Role-Royce Power Systems 固定型燃料電池のモデル事業支援(‘19年12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da Isuzu、燃料電池トラックの共同開発実施(‘201) - 燃料電池技術を外部メーカーに初めて提供、造船/船舶メーカーなど他産業にもFuel Cell Systemの販売を検討 - Honda Isuzuと連携し燃料電池車の普及と収益拡大を図る ○ ‘16年(Clarity Fuel Cell) 発売 - 出力103 kW、水素貯蔵 5.46 kg、航続距離 589 km (米国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米・陸軍電気車研究開発センターと軍用燃料電池トラック「コラドZ42」を開発(‘16年) ○ 「シルバードZ42」コンセプトカー発表(‘18年) ○ GM+Honda、燃料電池システムの共同生産に向けた合弁企業・ヒューエルセルシステムズ・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設立(‘17年)

燃料電池乗用車の開発



20年間にわたり燃料電池技術のノウハウを蓄積し独自の技術力を確保



Tucson ix

- ・ 世界で初めて量産(‘13年2月)
- ・ ヨーロッパ18ヶ国に輸出
- ・ 米国・10ベストエンジン賞

米国 2015 10ベストエンジン賞



フランス 今年のエコカー



NEXO

- ・ 充填時間5分
- ・ 600km以上走行
- ・ コア部品を独自開発
- ・ 10年16万キロ保証

米国 2019 10ベストエンジン賞



2018 CES エディターズ・チョイス



2018 CES アジア技術革新賞



ドイツ専門紙 Auto Motor und Sport ネットを高評価(‘20.06)

「航続距離が長く 充填時間が短いため、長距離用はもちろん 日常生活のファミリーカーとして不足なし」

世界初の燃料電池トラック量産('20. 7) および商用車の世界向け輸出を本格化

- 政府の実証事業を中心に高速バス、中型トラックなど'20年以降に車種別ラインナップを拡大

世界初
現代自動車、
燃料電池
大型トラック
量産



【燃料電池トラック「エクシレント」を10台、スイスに初めて輸出(7月)】

燃料電池スタック	190 kW
最高出力	350 kW
水素充填量	32 Kg
航続距離 (定速走行)	400 km



区分	主な内容	開発車両
中大型バ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政府・地方自治体のニーズを受けて市内バス開発 →市内バス: 地方自治体を中心に市内バスを販売 ※主要都市で実証事業推進および拡大検討 →大型バス: 政府の要請で警察輸送バス/高速バスの開発推進 	 市内バス(試験運行18年、量産'20年)  警察兵力、広域バス(開発中)
中大型トラック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型トラックのグローバルな輸出市場拡大に向けた燃料電池トラック開発 →中型トラック: ゴミ収集車および路面清掃車開発 →大型トラック: スイスH2 Energy社とMOU締結 計1,600台の供給を本格化 	 ゴミ収集車、路面清掃車(開発中)  次世代コンセプトカー「ネブチューン」(開発中)

NEXO、韓国およびヨーロッパの新車安全度評価で安定性を立証

- 国土交通部主管の'18年新車安全度評価(KNCAP)で、衝突・歩行者・事故予防部門の3冠
- ヨーロッパ新車安全性評価(Euro NCAP)で最高安全等級を獲得



前方衝突テスト



後方衝突テスト



前方衝突後の状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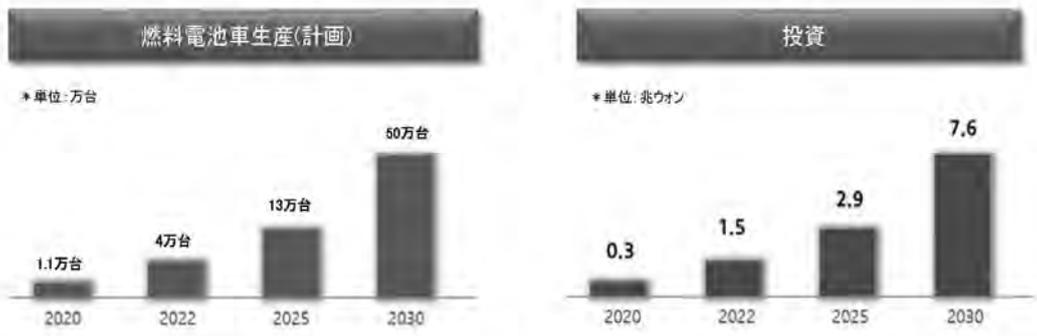


後方衝突時の水素タンクの状態

船舶や鉄道市場でも環境規制対応のため燃料電池の活用を推進中であり
 未来の都市型航空モビリティおよび非常発電機として燃料電池の活用拡大が可能

<p>水素燃料電池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船舶の環境規制強化により水素燃料電池船市場の成長を予想 小型船舶の動力源および大型船舶の補助電源を中心に市場形成が 	
<p>燃料電池列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電気供給が容易ではないローカル鉄道網の代替需要として活用を検討 静粛性/環境親和性が要求される都心内などの軽電鉄およびトラムに適用 	
<p>UAM (Urban Air Mo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Mは都心での移動効率性を最大化した次世代モビリティ バッテリーと比べ長時間の飛行が可能で、高密度・軽量のシステムを開発 	
<p>非常発電システ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エコ性能や高効率、常時稼働性などを活用し非常電力、補助電力に適用 データセンター、半導体工場、EV充電システム、補助電力など 	

現代自動車グループ、未来の水素経済の主導権確保に向け2030年までに7.6兆ウォンを先行投資
 - 2030年までに燃料電池車を年間50万台、燃料電池システム70万基の国内生産を推進



「現代自動車グループは、遠からず到来する
 水素経済という新産業分野の『ファーストムーバー』として
 水素が主要なエネルギーとなる水素社会をリードして行く」



需要増加が予想されるエコな水素生産と貯蔵技術の開発を推進

- バッテリー、燃料電池、スーパーキャパシタなどの技術ポートフォリオを通じ次世代モビリティを開発



モビリティ

- バッテリー、燃料電池、スーパーキャパシタ (車載電源) の3つの動力システムを活用し次世代モビリティを開発
- ※高出力燃料電池車にスーパーキャパシタ適用時、瞬間要求動力性能を補えず(バッテリー比の動力性能↑、創製!)
- 高性能車補助電源、トラム、UAMなどにスーパーキャパシタ適用可能

区分	エネルギー容量	エネルギーパワー	瞬間反応度
バッテリー	中	MEDIUM	MEDIUM
燃料電池	大	NORMAL	NORMAL
スーパーキャパシタ		HIGH	HIGH

【エネルギーシステム別の性能比較】

グローバル協力体系構築「水素委員会」 Hydrogen Council

世界各国の政府、企業、市民社会との継続的協業を通じ水素社会の実現を加速化

自動車、航空、石油化学、エネルギー、情報通信、金融/投資企業までが水素委員会に参加

創立会員13社('17.1)



Hydrogen Council フランス会議('20.1)

計92社に拡大('20.7)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보 고 서**

2020년 12월 발행

편집겸발행인 서석송

발 행 처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060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
[한일재단B/D 4F]

TEL : 02-3014-9888 FAX : 02-3014-9899

www.kje.or.kr